

EAI 사랑방 학생들의 베이징 답사기

사랑방의
젊은 그들
베이징을 품다

하영선 편



EAI
동아시아연구원

목차

머리말			2
답사일정표			3
백제사신이 남아 있는 곳 _국가박물관	①	배예슬	4
자금성이 만난 마지막 두 황제 _자금성	②	이지수	21
문명복합 대청제국의 실낙원 _원명원	③	이하형	47
서태후의 욕망이 집대성된 공간 _이화원	④	김미현	63
추사의 연행: 짧은 만남 긴 여운 _유리창	⑤	박민주	81
낭만적 현실주의자 모택동 _중국인민항일전쟁기념관	⑥	오인환	103
798 예술구의 정치학 _798 예술구	⑦	김솔비	126

머리말

EAI 사랑방의 젊은 그들 8기가 한 학기 동안 동아시아질서건축사 공부를 끝내고 중국의 천년 고도 베이징으로 해외답사를 나섰다.

역사박물관에서 천오 백년 전 양나라를 찾아 왔던 백제 사신을 만나고 명나라 영락제때 처음 건축된 자금성에서 중국의 마지막 황제들과 애환을 함께 했다. 청조 지식인들의 모임 장소였던 유리창에서 19세기 초 추사 김정희의 짧은 여행의 의미를 함께 토론했고, 청제국의 번영과 쇠퇴를 동시에 보여주는 원명원에서 파괴된 서양루를 돌아보고 이화원에서 청조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운명의 여인 서태후를 만났다. 항일전쟁 기념관에서 마오쩌둥의 생애와 함께 파란만장한 20세기 중국의 현대사를 공부하고, 마지막으로 798 예술구에서 시대를 앞서 가는 예술가들의 작품들을 보면서 21세기 중국의 미래를 내다보았다. 사흘 동안 전통 천하질서시대를 주도했던 중원 왕조들의 흔적을 살피고, 19세기 근대 국제질서의 도입과정에서 수난의 역사를 걸었던 중국을 돌아보고, 공산주의를 거쳐 21세기 강대국으로 부상하는 새로운 중국의 변화를 답사하면서 EAI 사랑방의 젊은 그들은 21세기의 개인, 한반도, 아시아태평양, 그리고 세계의 새로운 질서 건축을 함께 밤늦도록 토론하고, 고민하고, 그리고 꿈을 꾸었다.

2017년 8월 1일
만청(晩靑) 하 영 선

답사일정표

6월 22일 (목)

08:20	인천공항 출국
09:40	베이징 도착
11:30 ~ 12:30	점심식사
13:00 ~ 15:00	국가박물관 / 배예슬
15:30 ~ 17:30	자금성 / 이지수
18:00 ~ 19:00	저녁식사

6월23일 (금)

09:30 ~ 11:30	원명원 / 이하형
12:00 ~ 13:00	점심식사
14:00 ~ 16:00	이화원 / 김미현
16:30 ~ 18:00	유리창 / 박민주
18:00 ~ 17:00	저녁식사

6월24일 (토)

09:00 ~ 11:00	중국인민항일전쟁기념관 / 오인환
11:00 ~ 13:00	798예술구 / 김솔비
15:20	베이징 출국
18:20	인천공항 귀국

EAI 사랑방

2013년부터 시작된 소수 정예의 학생 그룹을 대상으로 한 교육프로그램이다. 하영선 EAI 이사장(서울대학교 명예교수)이 이끄는 본 프로그램은 동아시아와 국제정치에 대한 관심을 심화시키고자 하는 학생들을 선발하여 강독과 세미나를 진행한다. 매 학기 선발된 소수의 학생들은 심화학습을 수행하고 답사여행을 통해 역사와 국제정치의 현장을 직접 체험하는 기회를 갖는다.

백제 사신이 남아 있는 곳

_국가박물관

배예슬

조지타운대학교

들어가며

저희 사랑방 8기 답사팀은 2017년 6월 22일 목요일 아침 10시 40분에 북경에 도착했습니다. 떠나기 전날 며칠 계속 될 것으로 예상되던 기록적인 폭우로 북경에서 6명이 실종 되었다는 기사를 접하여서 큰 관심사는 북경 날씨였는데, 다행히 저희가 도착했을 때 비가 거의 그쳐서 악명 높은 중국 미세먼지는 씻겨 내려가고 운치 있는 북경이 저희를 맞이해주었습니다. 들뜬 마음으로

북촌한옥마을 분위기를 풍겼던 중국 전통 후통 거리의 식당에서 운남성식 휘귀(샤브샤브)를 먹고 답사의 첫 장소인 천안문 광장 동쪽에 위치한 국가 박물관으로 이동했습니다.

국가박물관은 면적이 세계 박물관 중 최대 규모로 약 170만년전 중국부터 현재까지의 시간을 아우르는 무려 130만개의 유물을 보유하고 있는데 한 학기 사랑방 수업을 통해 배운 천하질서의 역사를 유물을 통해 접할 생각을 하니 설렘했습니다. 저는 국가박물관의 수없이 많은 유물 중에서도 남북조 시대 남조 양(梁)나라에 조공한 외국 사신들을 그린 양직공도(梁職貢圖)에 대해 발제를 했는데, 국가박물관의 유물을 통해 중국 역사뿐만 아니라 천하질서에 포함되었던 동아시아의 역사도 보게 될 것 같아 기대 되었습니다.

빨리 양직공도에 그려진 백제의 사신을 보고 싶은 기대감을 갖고 시간절약상 국가박물관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백제 사신에 대해 발제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백제의 사신이 왜 양나라에 파견되었으며 양나라에서 무엇을 봤으며 백제의 외교에 어떻게 기여를 했는지 그 상황을 재구성해보았습니다.

양나라로 파견된 백제 사신

6세기 초·중반 백제는 중국 한족의 정통성과 선진문화로 남조 최대의 전성기를 맞은 남조 양(梁)나라에 사신을 총 5번 파견하였는데(정재운 2009, 188) 양나라 원제(元帝) 소역(蕭繹, 508-554)은 조공을 바치러 오는 외국 사신들의 모습과 사신들의 나라 역사와 풍속에 대한 기록을 담은 양직공도(梁職貢圖)를 제작하였습니다. 단정한 차림의 백제 사신 그림 옆에는 백제에 대한 정보를 적은 직방지(職方志)가 있는데, 백제와 고구려 및 주변 소국과의 관계, 백제와 중국과의 관계 역사, 백제의 통치체제 등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양직공도의 백제 사신은 왜 양나라에 파견되었고 무엇을 보고 백제에 가져왔으며, 그것을 바탕으로 주변국 왜국과 신라와의 관계를 비롯해 고대 백제의 외교 전략에 어떻게 기여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양직공도는 양(梁)나라 원제(元帝) 소역(蕭繹, 재위 552-554년)이 왕자 시절 형주자사(荊州刺史)를 지내던 526년에서 539년 사이에 제작하기 시작하여 양무제(梁武帝)가 나라를 설립한지 40년인 540년에 완성했는데(홍윤기 2004, 243) 양원제는 양나라에 파견되었던 실제 타국 사신들의 모습을 관찰하고 풍습을 물은 뒤 제작하였습니다(정재운 2009, 188). 백제에서 양나라로 5번 파견한 사신 중 이 시기에 파견한 사신의 활동에 대해서 중국 역사서

양서(梁序)와 삼국사기는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습니다.

『양(梁)·백제전(傳)』: “중대통(中大通) 6년 (534년)과 대동(大同) 7년(541년)에 백제는 거꾸 사신을 보내어 백제에서 나는 물산을 바쳤고, 아울러 『열반경』등의 경전과 그 해설서와 『모시』박사 그리고 공장(工匠)과 화사(畫師) 등을 보내줄 것을 요청하였으므로 (양 무제께서는) 조칙을 내려 이들을 모두 백제에 주었다. (中大通六年, 大同七年, 累遣使獻方物; 并請涅槃等經義, 毛詩博士, 并工匠, 畫師等, 敕並給之.)”

『삼국사기·백제본4·성왕·19년』: “성왕19년 (541년), 성왕은 사신을 양나라로 보내어 조공하고, 아울러 표를 올려 『모시』박사와 『열반경』 등에 대한 경전과 그 풀이 및 공장과 화사 당을 요청하였는데, 양나라에서는 우리의 요청을 따라주었다. (十九年 王遣使入梁朝貢, 兼表請 『毛詩』博士·涅槃等經義, 并工匠·畫師等, 從之.)”

백제는 534년과 541년에 양나라에 사신을 파견했는데 534년에 파견 된 사신은 백제에서 나는 물산을 바쳤고, 541년에 파견 된 사신은 열반경 등의 경전과 그 해설서, 모시 박사, 그리고

공장과 화사 등을 요청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상적인 것은 원본 문서에 사용 된 ‘칙(敕)’과 ‘표청(表請)’ 글자입니다. 이 한자는 백제가 양나라에 정식 문서 형태를 통해 문물을 요청하였고 양나라 또한 정식 문서를 통해 요청에 응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이를 통해 541년에 양나라에 파견되었던 백제 사신이 양나라 현지에서 즉흥적으로 요구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홍윤기 2004, 249). 541년 사신을 파견하며 이미 백제 측에서는 양나라의 문물을 파악한 상태로 자원을 요청할 계획으로 공식적 문서를 사신을 통해 보낸 것인데, 541년 양나라에 문물 지원 요청을 하기 위해서는 그 전 파견되었던 사신이 양나라 현지에서 자원을 파악해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534년에 파견되었던 백제 사신은 양나라 파견 당시 위 양서에 언급되어 있는 열반경 등의 불교 경전과 그에 대한 해설서, 모시박사, 공장(工匠), 그리고 화사(畫師)를 관찰하고 간 것이 핵심 활동 중 일부였을 것입니다.

백제 사신이 양나라에서 보고 온 것

백제가 양나라로부터 요청한 열반경과 같은 경전과 그 해설서,

공장, 화사 등 대부분의 문물은 불교의 수용 및 보급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양직공도 제작 당시 백제는 기존 한강 유역을 남하하는 고구려에게 빼앗긴 후 웅진으로 수도를 옮긴 상태였는데, 영토도 많이 축소 되어 내부 강화에 힘쓰던 상황이었습니다. 안정을 추구하는 환경 가운데 다른 불교 경전보다 상대적으로 내면적 강제(強制)에 초점을 둔 열반경의 이론을 백제가 매력적이게 받아들였을 것입니다(홍윤기 2004, 264). 특히 양무제가 509년 양나라 유명 열반학자인 보량(寶亮)에게 열반경의소(涅槃經義疏)를, 승랑(僧朗)에게는 열반경의 주요 해석 10대법사(大法師)와 양 무제의 생각을 종합한 열반경집해(涅槃經集解)을 편찬하도록 하는 등 열반경에 대한 자원을 많이 개발해 둔 상태였기에 백제의 관심을 끌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열반경에는 양직공도 제작 당시 양나라 불교의 핵심적인 이론인 불성(佛性)의 본질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었는데, 백제의 성왕(聖王, 재위 523-554년) 때 특히 양나라의 불교학 사상을 적극적으로 받아 들여 왕권 강화 정책들도 본받았습니다(최연식 2011, 199). 성왕은 양나라를 따라 대규모 사찰을 짓고 양무제가 자신에게 부여한 고대 인도 불교의 이상적 군주상을 의미하는 전륜성왕 지위를 똑같이 자신에게 부여하기도 했습니다(정재운 2009, 192).

공장(工匠)은 건축설계사와 목공을 뜻하고 화사(畫師)는 화공을 뜻하는데, 양직공도의 백제 사신은 양나라 현지에서 목격한

양나라의 대규모 사찰과 불상을 눈 여겨 보며 수준을 확인했을 것입니다. 양나라의 공장과 당나라 승려 도세(道世)가 지은 법원주림(法苑珠林)에 양나라 사찰에 대해 ‘모두 합치면 2,846곳, 번역된 불경이 248부, 승니는 82,700명이었다’라고 그 큰 규모를 기록하고 있는데, 현재 한반도 공주 지역에서 발견된 ‘양관와위사(梁官瓦爲師)’라는 벽돌 등도 백제가 양에서 공장을 초빙해 기술을 전수 받았음을 확인시켜줍니다(홍윤기 2004, 250-251).

불교 관련 문물 이외에도 위 양서에서도 언급 되었듯 백제는 중국 최고의 유학(儒學) 시집(詩集)인 시경(詩經)에 대한 해설서 모시의 양나라 권위자인 모시박사를 요청하였습니다. 양나라 무제는 모시를 새롭게 해석하는 작업에 힘썼는데, 모시발제서의(毛詩發題序義) 1권과 모시대(毛詩大義) 등 모시 관련 해석서를 편찬하여 양직공도의 백제 사신은 이런 사실을 파악하여 양나라 모시 박사를 요청한 것입니다(홍윤기 2004, 252).

백제의 중간국가 외교 전략

534년 양나라에 파견된 양직공도의 백제 사신이 양나라 현지에서

접한 것 중에서도 백제는 541년 양나라에 열반경과 모시박사, 공장과 화사를 요청했습니다. 백제가 들여온 이러한 선진문물은 백제의 문화 발달에도 큰 영향을 미쳐 백제의 불상과 사찰에서도 흔적을 찾아볼 수 있는데, 그 외에도 인상적인 것이 백제는 양나라에서 공수해온 선진문물을 주변국인 왜국과 신라에 전달했다는 것입니다. 양직공도에 나타난 백제 사신을 매개체로 양직공도 제작 당시 동아시아의 문화 교류는 양나라에서 백제, 백제에서 왜국의 방향으로 흐르는 것을 관찰할 수 있는데 이는 군사력으로 고구려보다 우세하지 않은 백제의 주변국 포섭 전략에 대한 실마리를 얻을 수 있게 해줍니다.

앞서 언급하였듯, 백제는 한반도 내에서 고구려를 지속적으로 견제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양직공도의 백제 직방지에는 “고구려에게 자주 격파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475년에 백제의 수도가 있던 한강 유역을 고구려에게 빼앗기고 백제는 고구려의 위협에 대항해야 했는데, 그래서 주변의 왜국과 신라와 연합하려 노력했습니다.

왜국과의 외교의 경우, 양직공도가 제작 되던 6세기 초·중반을 전후로 백제는 왜국에 오경박사(모시박사 포함), 불경, 공장 등을 꾸준히 보냈는데, 기록을 살펴보면 고구려와 임나(任那, 가야지역)의 분쟁이 있던 510년대에는 오경박사 단양이(段揚爾)와 고안무(高安茂)

등을 보냈고, 신라가 금관가야를 정복하려 하던 532년 전후에는 오경박사 마정안(馬丁安)과 백제의 토산물을 보냈습니다. 542-554년 동안 왜국에 오경박사와 불경, 공장을 보냈고 고구려와 전투하던 550년 초에는 학자들과 불교 서적, 불상, 그리고 역사, 의료, 음악 분야의 전문인들을 보냈습니다(김현구 2002, 29-32). 일본역사서인 일본서기는 4세기말부터 백제가 적극적으로 왜국에 선진문물을 제공하며 군사 지원을 요청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홍선화 2010, 98-99). 왜국도 고대국가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선진문물이 필요했는데 양나라의 문물과 백제 특유의 문화를 전수 받는 것에 큰 관심이 있었고 백제는 왜국의 욕구를 채워줄 수 있던 것입니다. 특히 양직공도의 사신들을 살펴보면 왜국 사신은 말끔한 백제 사신과 비교해 맨발에 봉제 되지 않은 천으로 몸을 감싸고 맨 모습을 하고 있어 양나라의 입장에서 백제보다 문물이 덜 발달된 국가로 인식되었습니다.

신라도 백제를 통해 불교 자원과 기술 등 선진 문물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양서에 의하면 신라는 양직공도 제작 당시 “나라가 작아서 독자적으로 사신을 파견할 수 없었고” 백제를 통해 양나라에 사신을 파견하였습니다. 5세기 말 신라 소지마립간 15년(493년) 백제는 신라와 이미 혼인 관계를 통해 동맹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관산성전투와 백제의 시련”,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 컬렉션) 백제가 양나라에 사신을 보낼 때 즈음 신라와 공식적

통호의 기록이 있습니다. 이는 신라와 백제 사이 협정이 맺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데(정재운 2009, 191) 신라를 대신해 양나라에 사신을 파견해 주면서 함께 고구려를 대적할 수 있는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신라에게도 필요한 선진문물과 기술을 전달했다고 유추할 수 있습니다.

서로에게 우호적이었던 양나라와 백제

양직공도에는 다른 나라 사신 중 여럿이 맨발, 헝클어진 머리, 풀어헤친 옷 등의 모습을 하고 있는 반면, 백제 사신은 공손한 자세를 한 말끔한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는 양직공도 제작 당시 양나라와 백제의 우호적인 관계를 나타내는데, 백제가 고구려를 견제하기 위해 양나라가 필요했던 것처럼 양나라 또한 백제와의 관계에서 이익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양직공도 제작 시기에 중국은 남북조 시대로 남조의 양나라는 북중국을 견제해야 했는데, 북중국은 강한 기마 군단을 토대로 군사력이 막강했고 남조는 한족 정통 왕조의 정당성과 선진문물에서 우위를 차지했기에 서로가 절대적으로 우세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백제가 주변국 왜국과 신라를 포섭하여 고구려에 대항했듯 남북조도 주변국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맺어 상대국을 견제하려 노력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했을 때 양직공도의 백제 직방지에는 “양나라 초에 여태(餘太)는 정동장군(征東將軍)에 제수하였다”라 쓰여 있는데, 이는 502년 백제가 처음으로 양나라에 책봉을 받았을 때의 일입니다. 정동장군이라는 작호는 ‘동쪽을 정벌하였다’라는 뜻으로 그 전 진동장군, 진동대장군의 관작보다 높은 단계로, 이때 백제의 위상이 높아졌습니다. 직방지에는 또 521년 백제가 여러 차례 고구려를 물리쳤다고 기록하는데, 이와 관련해 양서 백제조에서도 ‘비로소 고구려와 우호 관계를 맺었다. 백제가 다시 강국이 되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해석은 정재운 2009, 190 참고). 그러므로 양직공도가 제작 되었을 당시 양나라 입장에서는 백제가 한반도에서 고구려를 견제할 만한 국력을 갖춘 나라로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더불어 양나라의 선진문물을 왜국과 신라에도 전달하여 양나라에게는 백제와의 우호적인 관계가 유리했을 것입니다.

양직공도의 백제 사신이 6세기 중국 양나라에 파견 되어 현지에서 관찰하고 백제에 보고한 것을 기반으로 백제는 선진문물을 들여와 주변국 왜국과 신라를 포섭하는 전략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수도를 고구려에게 빼앗기고 주변국과 비교했을 때 군사력이 현저히 막강하지도 않은 중간국가로서 문화 전달을 통해 주변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어가며 생존전략을 세워 나간 것에 의의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국가박물관을 훑어보다



▲ 1층 로비에 있는 중국 공산당 창립 멤버 동상 앞에서

백제 사신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는데 버스는 딱 알맞게 국가박물관 앞에 도착하였습니다. 중국 국가박물관은 축구장 27 개에 해당하는 192,000 제곱 미터로 이루어져 있어 전세계 박물관 중 가장 큰

면적에서 약 130 만개의 유물을 소장하고 있는데, 저희 답사팀은 이런 국가박물관에서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약 한시간 반으로 최대한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고 나와야 하는 미션을 안고 양직공도의 백제사신을 만나러 국가박물관에 입장하였습니다.



▲ 1 층 ‘지도자·인민’ 현대미술작품 전시실

국가박물관에서의 짧은 시간 동안 저희는 1 층의 ‘지도자·인민’이라는 제목의 현대미술작품전과 지하 1 의 ‘고대중국’ 전시관을 둘러볼 수 있었습니다. 국가박물관의 로비에서부터 이미 위 사진에서 볼 수 있듯 중국 공산당의 창당과 업적을 강조하는 큰 규모의 작품과 분위기를 맞볼 수 있었는데, 1 층 현대미술작품전에서는 중국 공산당의 지도자들과 인민들을

주제로 한 그림들을 구경했습니다. 붉은 깃발을 들고 힘난해 보이는 환경에서 결의에 찬 표정으로 전투에 임하는 중국 공산당의 모습들을 비롯해 혁명에 공헌한 인물들이 등장하는 생동감 있는 역사적 현장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현대미술작품전에서 그림들을 구경한 후 저희 답사팀은 지하 1 층 고대중국 전시관으로 이동하였는데, 이곳은 약 170 만년전 상고시대부터 하상서주, 춘추전국, 진한, 삼국양진 남북조, 수당오, 요송하금원, 그리고 명청시대까지의 유물들을 시대순으로 전시하고 있었습니다. 아쉽게도 시대별로 유물들을 구체적으로 다 살펴보는 못했지만 평소에 들어본 진시황의 병마용 등의 유물을 알아볼 수 있었고, 각 시대 전시관을 지나면서 시대별 인상적인 특징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하상서주 시대 전시관에서는 사랑방 수업을 통해 배운 천하질서의 ‘천(天)’ 글자가 처음으로 단순히 자연을 뜻하는 글자에서 정치적인 뜻을 갖게 되었다는 청동 제기 ‘대우정’과 흡사한 형태 한 유물들을 구경할 수 있었고, 당나라 전시관에서는 다른 시대와는 구별되는 화려한 색감의 삼채유약 도자기 작품들이 다양하게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여러 전시관을 지나 드디어 몇 달 동안 연구했던 양직공도가 전시 되어 있는 남북조시대 전시관을 설렌 마음으로 들어갔을 때, 안타깝게도 양직공도의 백제 사신은 만나볼 수 없었습니다.

양직공도는 아래 사진에 나타나듯 두루마리 형태를 하고 있는데, 현재 양직공도엔 양나라에 조공을 바치러 온 사신 12 명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본 양직공도는 양쪽이 돌돌 말려 있어서 가운데 7 명의 사신만 볼 수 있었습니다. 아쉽게도 오른쪽 끝부분에 있어야 할 백제 사신의 모습은 볼 수 없었습니다



▲ 양쪽이 말린 상태로 남북조관에 전시되어 있는 양직공도

박물관을 나오며

저희는 한시간 반정도 국가박물관을 둘러본 후 아쉬운 마음으로

자금성으로 서둘러 발길을 옮겨야 해서 구체적으로 유물에 대한 설명을 많이 읽지 못하고 아예 지나친 유물도 많았습니다. 특히나 아쉬웠던 점은 방문 전 국가박물관은 중국 다민족 통합의 역사와 공산당의 정당성을 굉장히 많이 반영한다는 평가를 많이 접해 왜 그럴까 궁금했는데, 전시되어 있는 유물을 흡수하는데 급급했던 나머지 정말 그런지 살필 수 없었다는 점입니다. 아쉬운 점도 있었지만 주어진 시간에 알차게 수천년의 역사를 살펴보며 앞으로 더 채워 나갈 수 있는 뼈대가 뿌듯하게 세워진 기분이었습니다. 양직공도라는 그림 한 작품의 인물을 통해서 중간국가의 외교에 대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었듯 국가박물관 유물에 얽힌 여러 사연이 궁금해져 또 찾고 싶은 국가박물관이었습니다.

참고문헌

“관산성 전투와 백제의 시련,”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 컬렉션 홈페이지 http://nlcollection.nl.go.kr/front/detail/detail.do?rec_key=CO0000004004&category_id=CA0000000058 (검색일: 2017. 6.20)

김현구. 2002. 《백제는 일본의 기원인가》. 서울: 창작과비평사.

정재운. 2009. “5-6세기 백제의 남조 중심 외교 정책과 그 의미.”

<백제 문화> 41권 0호.

최연식. 2011. “백제 후기의 불교학의 전개과정.” <불교학연구> 제 28호.

홍선화. 2010. “4-6세기 百濟와 倭의 관계.” <한일관계사연구> 제 36집, 3-38.

홍윤기. 2004. “<양직공도>의 백제 사신과 유협.” <중국어문논총> 27권 0호.

자금성이 만난 두 마지막 황제 _자금성

이지수

서울대학교

들어가며

2017년 6월 22일, 사랑방 8기는 자금성이 만난 ‘두 마지막 황제’ 푸이(溥儀)와 위안스카이(袁世凱)를 보기 위해 먹구름 낀 하늘 아래의 자금성을 찾았습니다. 두 마지막 황제의 비극적인 퇴장 과정을 복원하려는 시도에 무대효과라도 더해주려는 듯 우리가 찾은 북경의 고궁에는 세찬 비 줄기가 내리는 중이었습니다. 자금성 남쪽의 첫 관문인 태화문을 지나자 청색이 감도는 바닥벽돌로 포장된 약 11,500평의 자금성의 가장 넓은 광장인

태화전광장이 우리를 반겨주었습니다. 맞은편에는 위엄 있는 황제의 공식 직무공간이자 관료접견 공간인 태화전이 청조의 잊혀진 위상과 위엄을 뽐내며 굳건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자금성 내에서뿐만 아니라 현존하는 중국 최대의 목조건물로서 보는 이에게 위압감마저 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북경의 기록적인 폭우 덕분에 자금성의 금지된 구역으로서의 면모도 더욱 빛을 발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퇴장한 두 마지막 황제의 심경을 짐작해보니 쓸쓸하고 스산한 느낌도 들었습니다. 잠시 비를 피할 곳을 찾아 태화문 기와 아래에서 위안스카이의 흔적을 찾아보는 것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복원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 ‘천상의 평화의 문’이라는 뜻을 가진 천안문(天安門)

자금성이 본 마지막 황제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이

물음에 답하기 위해서는 우선 중국의 마지막 황제가 누구인가를 상정해야겠습니다. 이 글은 20세기 자금성이 두 명의 마지막 황제를 목격하였다는 전제로 출발하여 복원작업을 진행하려 합니다. 그 중 한 명은 청나라의 마지막 황제인 선통제(宣統帝) 푸이입니다. 다른 한 명은 중화제국의 처음이자 마지막 황제인 홍헌제(洪憲帝) 위안스카이입니다. 푸이와 위안스카이를 ‘마지막 황제들’로 상정하게 된 과정을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908년 3살 푸이는 갑작스럽게 황좌에 올랐지만 신해혁명으로 4년만인 1912년 2월 12일 청제국의 몰락을 경험했습니다. 당시 청나라 총리대신 위안스카이는 룡위태후(隆裕太后)에게 청황실이 고려할 수 있는 두 가지 선택지는 내전 혹은 화친뿐이라며 창조 퇴진을 전제한 화친을 제안했습니다. 룡위태후는 생령을 도탄에 빠뜨릴 수 없다며 화친에 동의하게 됩니다. 퇴위하기만 하면 외국 황족으로 우대하겠다는 민국정부의 청황실우대조건이 결정에 많은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매년 은화 4백만 냥을 지원한다는 조건을 포함한 청황실우대조건으로 선통황제 푸이는 보화전·중화전·태화전을 제외한 자금성의 제한된 공간에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으며 공화국인 중화민국 영토 안의 고궁에는 존호가 보장된 황제가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푸이의 퇴위조서가 반포 된지 불과 4년도 지나지 않은 1916년 새해 첫날, 위안스카이는 임시총통직과 정식총통직을 거쳐

중화제국을 선포하고 자금성에 입성합니다. 그는 총통시절에도 폐위된 푸이에게는 허락되지 않은 보화전·중화전·태화전 삼대전을 집무실로 점유했었습니다. 하지만 군주제에 대한 거센 반발에 부딪히자 결국 3월 22일 군주제 철회명령을 전달하였으며 3월 23일에는 자신의 원호(元號)인 홍헌연호를 폐지할 것과 1906년을 기준으로 다시 중화민국 5년을 시작하겠다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공들여 쌓아온 탑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20세기 초 격변의 도시 북경의 자금성은 두 명의 ‘마지막 황제’를 목격했습니다. 쫓겨난 푸이와 자금성의 새 주인이 되려 했던 위안스카이가 자금성을 떠나게 된 과정과 그때의 심경은 어떠하였을까요? 자금성이 목격한 두 마지막 황제의 심정을 복원하고자 그들의 흔적을 찾아 비 내리는 자금성에 들어갔습니다.

푸이의 자금성

청대의 군주제가 무력으로 전복 되지 않았으며 황실제도의 종말이 타협의 산물이었다는 것을 고려할 때 위안스카이가 룡위태후와의 화친제안에서 제시한 황실우대조건의 역사적 의의는 상당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푸이의 스승 레이널드 존스톤(Reginald Fleming Johnston)은 만약 위안스카이가 쑨원(孫文)과의 막후 타협으로 청황실우대조건을 내세워 황실의 설득하지 않았더라면 적어도 몇 년간 계속될 정도의 내전이 아닌 한 황실이 혁명파에게 무력으로 제압당할 가능성은 희박했다고 평가합니다(Johnston 2008, 144). 그의 주장에 의하면 황실우대조건은 중국의 정치체제 변화과정이 유럽과 비교할 때 비교적 평화롭게 이행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황실우대조건이 유효가 발효된 시작과 끝점에서의 자금성의 상황은 어떠한지를 살펴봄으로써 자금성이 만난 푸이의 자금성 퇴거과정을 세 가지 주요 장면으로 나누어 재조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면은 자금성 양심전 동원각에서의 롱위태후와 위안스카이의 회담입니다. 회담을 통해 롱위태후는 제국 청나라에서 공화정 중화민국으로의 변혁을 허락합니다. 두 번째 장면은 양심전 황좌에서 푸이와 장쑨(孫文)의 첫 만남입니다. 푸이는 장쑨의 요청에 의해 황제에 다시 오를 것을 수락함으로써 복벽운동을 받아들였습니다. 세 번째 장면은 푸이가 저수궁에서 전달받은 펑위샹(馮玉祥)의 최후의 통첩입니다. 펑위샹이 쿠데타로 점거한 민국정부는 청실우대조건수정안을 자금성에 통보함으로써 푸이의 신속한 퇴거를 명령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푸이는 답답한 자금성생활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에 따라 다시

‘옥좌’에 앉겠다는 이상과 함께 고궁을 떠나게 됩니다.

첫 번째 장면: 靑의 황제 民國의 푸이

자서전 『황제에서 시민으로』(원제:我的前半生)를 통해 자금성에서의 마지막 나날 중 가장 인상 깊은 사건으로 푸이는 동원각에서의 롱위태후와 위안스카이의 만남을 회고합니다. 어느 겨울날 푸이는 동원각에서 롱위태후가 남쪽 창가 쪽 온돌에 기대앉아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고 있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대화상대는 뚱뚱하고 못생긴 노인이었는데 그 역시 얼굴 가득히 눈물을 흘리고 있는 광경이었습니다. ‘뚱보노인’은 눈물 콧물을 닦으며 매우 큰 소리로 무언가를 열심히 말했으나 당시 7세의 어린 푸이는 거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 뚱보노인이 위안스카이였다는 사실도 시간이 흐른 뒤에야 환관들로부터 전해 들어 알게 되었습니다. 이 장면이 푸이가 위안스카이를 직접 본 유일한 순간이었으며, 위안스카이가 태후를 만난 최후의 날이었음을 그는 커서야 깨닫게 됩니다.

1912년 1월 28일 동원각에서 위안스카이가 눈물 콧물을 흘리며 큰 소리로 말한 대화의 주제는 청황실 퇴원문제였습니다. 신해혁명을 마주한 청황실에게 공화제를 실시하는 방안 이외에는 어떠한 출로도 없다며 태후와 비밀상주를 한 순간입니다. 본래 위안스카이는 쑨원의 임시총통직을 물려주겠다는 은밀한 제안의

실현가능성을 확신하기 전까지 혁명군과 청군의 평화담판에서 줄곧 공화제 실시를 반대하고 군주입헌제를 주장해왔었습니다.

하지만 푸이가 목격한 위안스카이는 이미 총통자리에 대한 확신과 야망이 황실에 대한 충성심을 능가한 상태였습니다. 그가 들먹인 프랑스 루이 16세의 실정과 혁명으로 그 자손이 살아남지 못 한일, 쑨원이 넘겨준 황실우대조건안에 설득된 롱위태후는 1912년 2월 12일 푸이의 퇴위조서를 반포하게 됩니다. 푸이는 조서반포 직후에 벌어진 일을 회고록에서 담담한 어조로 서술합니다.

위안스카이는 롱위태후의 어지에 근거해 민국 임시공화정부를 조직하고 한편으로는 남방 혁명군과 달성한 협의를 근거로 하루 만에 대청제국 내각총리대신에서 중화민국 임시 대총통으로 돌변했다. 그리하여 나는 대총통의 이웃이 되어 작은 조정의 생활을 시작하게 된 것이다(푸이 1988, 65).

청황실우대조건의 제3조에 언급된 ‘잠시 궁중에 기거 한다’는 구체적인 기한이 규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롱위태후를 비롯한 많은 왕공과 자금성 사람들은 우대조건이 황실의 명목적인 보존을 보장해줄 것이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푸이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푸이 1988, 179). 우대조건이 지속되리라는 것을 믿지 않았을 뿐 아니라, 신변에도 위협을 느꼈습니다. 계속해서 내전이 발생하고 어느 한쪽이 승기를 거머쥐다가도 패전하는 시세를 지켜보며 목숨을 위협하는 위험이 느닷없이 닥치지는 않을까 두려워한 것입니다. 그는 회고록에서 중화민국 건립 직후 당시 자신의 염두는 단 하나, 당국이 나에게 위해를 가할 것인가 아닌가 하는 문제였지 우대하는가 어떤가 하는 문제가 아니었다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동원각 회담장면을 통해 롱위태후가 민국승인 어지를 내리고 황제의 퇴위조서를 발표하여 선통제가 마침내 호칭만을 유지한 채 중화민국 국민과 동등한 법률상의 지위를 갖게 된 과정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북경의 고궁에는 황제가 계속 살고 있었기에 민국 정부에 적대감을 가진 자들은 여전히 그를 세상의 중심으로 삼았고, 결국 복벽을 위한 각종 계략들은 오히려 푸이를 자금성에서 내몰게 됩니다.

두 번째 장면: 푸이 다시 황제가 되다

뒤에서 자세히 다루겠지만 위안스카이는 결국 1916년 1월 1일 황제의 자리에 오르지만 즉위 5개월하고 5일 만에 명을 다합니다. 푸이는 위안스카이가 죽은 뒤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회고합니다.

위안스카이 시대에 여기저기 숨어 있었던 왕공 대신들이 다시 사교장소에 모습을 드러내었다. 정월 초하루와 나의 생일에는 대총통이 사절을 보내어 축하했으며, 나의 부친도 여원홍과 진기서에게 진수성찬을 보냈다. 어쨌든 자금성은 다시 예전과 같은 활기를 되찾았다. 그리고 정사년(민국6년)에 이르러, 장신이 궁으로 들어와 문안을 드리면서 복벽의 기운이 고조되기 시작했다(푸이 1988, 126).

원의 죽음은 민국정부를 지지하지 않고 청에게 충성을 맹세한 장선(孫文)을 비롯한 복고파 인물들의 주도아래 청조복벽운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장선이 이끈 정사복벽이 그 중 하나인데, 이 사건을 통해 푸이는 11일간 다시 ‘청나라 황제’가 되었습니다. 신해혁명 당시 남경 수비를 맡았던 장선은 혁명군의 공격에 맞서 10일에 걸친 치열한 전투를 벌였고 중화민국이 수립된 뒤에도 여전히 청조에 대한 충성을 맹세하여 휘하의 군대를 산동성에 주둔시킨 청의 충신을 자처해온 인물입니다. 위안스카이가 세상을 떠나자 그는 정변을 일으켜 북경을 장악했습니다. 장선은 1917년 6월 16일 자금성에 들어가 푸이를 알현했고 곧 7월 1일 청조의 부활을 선언했습니다. 그날 11살 푸이는 용상에 앉아 민국6년을 선통 9년 5월 13일로 고쳤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착오적 정변은 당장 중국 전역의 격렬한 저항에 부딪혔고 쑨원(孫文)은 중화민국에 대한

반란이라며 토역을 선언합니다. 7월 5일 자금성의 하늘에는 한대의 복엽기가 나타났습니다. 푸이를 비롯해 비행기를 난생 처음 본 관료들과 시녀들은 신기한 새라며 어리둥절해 했지만 요란한 폭음과 함께 세 발의 폭탄이 떨어지자 곧 모두 경악하였습니다. 결국 정사복벽은 11일만에 실패했고 장선은 네덜란드 공사관으로 피신했습니다.

복벽소동은 장선에게도 심각한 좌절을 초래했지만 푸이의 손실은 그것보다 훨씬 컸습니다. 황실의 복벽야심이 폭로되어 공화제를 옹호하는 ‘애국지사’들이 황제를 민국의 적으로 간주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곧 민국정부로부터 받아들인 특별대우에 심각한 영향을 주었고 평위상(馮玉祥)은 영원히 복벽의 싹을 제거하기 위해 푸이를 자금성에서 완전히 몰아내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선통제복벽이라는 촌극이 막을 내리자 이번에는 황제가 대궐 밖으로 쫓겨나는 비극이 연출된 것입니다.

세 번째 장면: 푸이 다시 시민이 되다

푸이의 자금성 생활은 결국 평위상의 쿠데타로 끝을 맞이합니다. ‘잠시 궁중에 기거한다’는 청황실우대조건 제3조에 구체적인 기한은 명시되어있지 않았지만 결국 그 끝은 있었던 것입니다. 평위상의 정변소식이 궁중에 전해지자 자금성은 복벽실패 이후 또

다시 두려움에 떨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1924년 11월 15일 파죽지세로 북경에 도착한 평위상은 무력으로 자금성을 포위하여 황실우대조건수정안을 통보함과 동시에 푸이퇴거를 명령했습니다.

15일 오후 9시 무렵, 푸이는 저수궁에서 황후 완용(婉容)과 과일을 먹으며 시간을 보내던 중 쿠데타소식을 접하였습니다. 민국이 기존우대조건을 폐지 할 것이며 새로운 우대조건 수정안을 만들었다는 대신들의 말에 그는 별떡 일어나 입에든 사과를 땅에다 뺏어낼 정도로 아연실색했습니다. 청실우대조건수정안은 제1조에 대청 선통제는 이제부터 황제의 존호를 폐지하고 법률상 중화민국 국민과 동등한 모든 권리를 갖게 됨을 명시했습니다. 제3조에는 ‘청실은 원래의 우대조건 제3조에 기초하여 즉시 궁성을 떠나야 한다. 이후 주거선택을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며, 민국정부는 여전히 보호의 책임을 진다’는 조항이 포함되었습니다.

수용하지 않을 시 자금성에 대포를 쏘겠다는 위협에 푸이는 이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고 당시 상황을 회고합니다(푸이 1988, 218). 자금성을 떠나기 위해 성 북문에 도착해 차에서 내리는 순간 그는 “공민이 되었다니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게 됩니다. 장래 대총통으로 선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라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황제의 자리에서 쫓겨난 자에게 대총통으로 선출될 가능성을 친절히 알려주다니, 목숨을 내놓을 것을 권유하는 것과

다르다고 할 수 있을까요? 푸이 역시 대총통이라는 세 글자가 자신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때 그는 이미 “재능을 감추고 밖으로 노출시키지 않는다”는 의미를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푸이는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원래 그 우대조건을 원하지 않았었습니다. 이제 그것이 폐지 된 것은 내 생각과 합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당신들의 말에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황제 노릇은 자유가 없었는데, 이제 나는 ‘자유’를 얻겠군요.” 푸이는 퇴위된 황제로서 여태껏 자신에게 가해진 제한과 방해를 혐오해왔고 자금성에서의 통제된 삶에서 벗어난 ‘자유’를 원했습니다. 그가 뜻한 자유는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에 따라 선조의 옛 업적을 회복하고 대청제국의 위용을 다시 진작하겠다는, 그러기 위하여 옥좌에 다시 앉겠다는 이상을 실현하는 것이었습니다.

16년간의 명목상 황제생활은 자금성에서 쫓겨난 뒤에도 푸이 자신만이 중국의 합법한 황제라는 의식을 내재하게 했습니다. 이 의식은 대청제국광복이라는 환상을 실현하겠다는 행동으로 이어져 중국을 침략한 일본 군벌과도 결탁하고 침략의 공범이 되어 조국을 위협에 빠뜨리기도 했습니다. 후에 그는 중일전쟁전쟁 전범으로 전락하여 소련 시베리아 수용소에 장기간 구금됩니다. 푸이의 복잡다단한 운명은 중국의 진정한 황제가 되려는 야심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한편 그 야심은 중화민국 성립허가를 전제로

주어진 각종 우대조건의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기에, 결국 ‘청황실우대조건’이 그를 황좌에서 내려오게도 했고 오르게도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금성과 위안스카이

위안스카이는 중화제국의 처음이자 마지막 황제입니다. 푸이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 황제가 되었다면 위안스카이는 끊임없는 노력과 야망으로 한 걸음씩 자금성에 가까워 졌습니다. 청조가 무너지고 중화민국이 그 자리를 대신하던 시기 황좌를 향한 위안스카이의 여정을 살펴봄으로써 민국성립 이후 자금성이 만난 위안스카이의 삶을 세 가지 주요 장면으로 나누어 조명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자금성이 본 위안스카이의 마지막 황제로서의 모습을 복원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장면은 청의 총리대신 직책에 있을 때 총통이 되기 위해 황실을 배반한 사건입니다. 우대조건을 들어 청조를 설득한 대가로 그는 쑨원의 자리를 이어받아 중화민국의 임시대총통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장면은 공화국의 민주정치적 요소를 걸림돌이라 여기고 시대의 흐름에 역행해

스스로를 새로운 황제라 칭한 일입니다. 위안스카이는 민주적 절차를 악용하고 정적을 제거함으로써 임시총통에서 정식총통으로, 정식총통에서 중화제국의 황제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 장면은 군주제 선포 후 대내외의 극렬한 반발에 못 이겨 결국 이를 무른 뒤 지병을 얻어 사망하기까지의 과정입니다. 그는 세 달도 못 버티고 군주제를 철회했으며 다시 중화민국 5년을 시작하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중화제국 처음이자 마지막황제인 위안스카이는 민국의 총통에서 제국의 황제가 되었다가 취소하기까지 총 83일이 걸렸고 5개월 5일 만에 명을 다하게 됩니다.

첫 번째 장면: 淸의 총리대신 民國의 총통

1912년 1월 1일 쑨원의 삼민주의를 필두로 한 신해혁명으로 청나라가 무너지고 중화민국이 선포되었습니다. 임시총통 쑨원은 자신이 그 자리에 취임한 것은 적당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라며 위안스카이에게 전쟁을 통하지 않고 공화정을 이루기만 한다면 반드시 총통자리를 양보하겠다고 제안합니다. 위안스카이는 황제가 있는데 어떻게 민국정부가 들어설 수 있느냐며 반대했지만 속으로는 머뭇거리는 형편이었습니다. 총리대신으로서 혁명당 진압책임을 맡고 있었기에 공화제를 대놓고 주장하기는 곤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는 이미 광서제(光緒帝)때 “입헌을 방해하는 자는

역적이다”라며 앞장서 입헌제도를 지지했었습니다. 이에 쑨원이 황제가 퇴위하고 공화정이 선포된다면 반드시 임시총통의 자리를 내어주겠다는 약속을 거듭 확실히 하자 마침내 위안스카이는 막후에서 제안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1912년 1월 16일 위안스카이는 전국적인 봉건타도운동으로 어려워진 군비문제 및 공화정실현이 민심이라는 내용의 상소문을 롱위태후에게 올렸습니다. 프랑스 루이 16세가 세상물정에 어두워 그 자손이 혁명당에게 모조리 피살된 것을 예로 들며 시국을 살피고 ‘민심’을 따를 것을 요청한 것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위안스카이 자신이 황제자리에 오르려는 시도에 대해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진 루이 16세처럼 되지 말고 워싱턴이 되라”고 말한 쟁치엔(張鶯)의 권고와 중첩되어 권력의 아이러니함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푸이 퇴위조서 반포 다음날 쑨원은 사직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위안스카이를 임시정부 대총통으로 추천하였고 이틀 뒤인 2월 15일 위안스카이는 임시대총통이 됩니다. 하지만 중화민국은 아직 국정을 이끌 능력과 체계가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위안스카이를 중심으로 한 구관료가 권력을 장악하게 되었고 혁명정신의 약화가 초래되었습니다. 이로써 그는 자신에게 걸림돌이 되는 정적을 제거하여 간접민주선거를 악용한 독재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13년 10월 10일 위안스카이는

갖은 책략을 통해 정식총통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총통취임식과 무창봉기 기념행사는 함께 진행되었는데 그가 선택한 행사장소는 국회도 아니고 총통부도 아닌 청의 옛 황궁 자금성이었습니다. 1913년 10월 10일 태화전 앞에서 위안스카이는 육해군 대원수의 예복을 입고 국회의원들 앞에서 선서를 합니다.



▲ 위안스카이의 총통취임식이 진행된 태화전. 태화전은 본래 명·청의 황제 즉위식 및 황실의 중요행사가 거행되던 곳이다.

사랑방 8기가 태화전 광장에 섰을 때처럼 세찬 비가 내리는 중이었습니다. “나는 성실하게 헌법을 준수하고 총통의 직무를

집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한다.” 취임식이 끝나자 비도 그쳤습니다. 위안스카이의 취임행사에 일어난 세 가지 불상사를 기술한 후의(侯毅)의 <홍헌구문>에 따르면 10월 10일을 기준으로 앞 뒤 수 십일은 맑고 좋은 날씨였는데 취임식 진행 중에만 갑자기 비가 내렸다고 합니다. 태화전에 걸린 비단 오색국기는 비에 젖은 그 색이 모호해 마치 비단에 피눈물이 남겨진 듯 했다고 전해집니다.

두 번째 장면: 民國의 총통 帝國의 황제

당시의 국제정치는 서양에선 국가 간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동양에선 서양을 만난 일본이 중국을 넘보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위안스카이는 일본의 메이지 천황도 배우려 했지만 유럽을 쥐고 흔들던 독일 빌헬름 2세(Friedrich Wilhelm Victor Albert)의 철권정치와 비스마르크(Otto Eduard Leopold von Bismarck)의 군비확장주의를 더욱 흠모했습니다(허우 이제 2003, 286). 빌헬름 2세는 “공화정은 중국에 맞지 않으니 강력한 군주제를 세워야 한다” 강조했으며 위안스카이의 아들 원극정을 독일로 초대해 연회를 베풀고 중국은 군주제를 실시할 때에만 강해질 수 있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습니다. 위안스카이는 황실제도의 관료제와 군대의 상명하달식 명령에 익숙한 인물이었기에 마침 민국의 국회, 책임내각, 정당정치 같은 민주정치적 요소들이

자신의 뜻을 실행에 옮기는데 걸림돌로 여겨지던 참이었습니다.

때문에 황실제도의 부활을 부추기는 빌헬름 2세의 서한은 현 제도가 나라의 중요한 결정을 더디게 한다는 위안스카이의 불만에 명분을 부여함과 동시에 황제의 자리에 오르고 싶은 욕망을 한층 강화시켰습니다. 그는 곧 국회와 임시약법을 대대적으로 손보기에 착수해 총통권한 확대를 요구했습니다. 총통이 약법에 속박되는 것은 4억 국민이 법에 속박되는 것과 마찬가지로는 논리였습니다. 그는 ‘외교권은 마땅히 총통에게 주어야 하며 전쟁의 선포·화해 조약을 체결하는 것은 참의원의 동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정식헌법은 국회가 아닌 국민회의에서 제정하고 총통이 공포하며 작성권도 총통과 참의원에게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공화정의 민주주의정신을 유린하려는 위안스카이의 시도는 반발에 부딪히지만 결과적으로 정식약법에 반영되었습니다. 1914년 5월 1일 공포된 중화민국 정식약법은 국가체제를 총통제로 규정하나 총통의 국회해산권까지 더하여 위안스카이에게 거의 황제에 맞먹는 권력을 부여하였습니다.

이윽고 1915년 12월 11일 위안스카이는 비공개적으로 설립된 국민대표대회의 투표로 황제직에 추대됩니다. 신해혁명때 국민이 감정에 치우쳐 갑작스럽게 공화국을 선택해 나라가 고통을 겪고 있다며 그의 황제등극을 적극 지지하는 주안회가 조직되고,

전국청원연합회가 나타나 각종 입법기구에 체제개혁을 청원했으며, 국민대표대회를 통해 입법기관 표결을 거쳐 1993명 중 1993명이 군주제 찬성에 투표한 덕분입니다. 이러한 사건들의 배후에는 위안스카이와 그 측근세력의 주도가 있었습니다.

여기까지의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왕정복고를 지지하던 일본이 갑작스런 태도변화를 보였고 10월 28일 체제투표가 시행되자 일본·영국·러시아·프랑스·이탈리아가 군주제로의 추진을 늦추거나 중지할 것을 권고한 탓입니다. 군주제진행이 예상치 못한 변수를 만나자 위안스카이의 휘하세력은 상황이 더 나빠지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황제자리에 취임해야 한다며 오히려 그를 재촉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외국의 부정적 반응에 잠시 주춤했던 위안스카이는 곧 측근의 주장에 설득되어 우선 국내에서만 제위에 오르는 의식을 거행하고 후에 길일을 택해 해외사절을 초대하자는 제안을 승인합니다. 12월 11일 참정원 회의는 위안스카이를 황제로 모시자는 추대서를 올렸습니다. 19일에는 황제즉위 준비기관인 대전주비처가 설립되었습니다. 자금성의 태화전·중화전·보화전은 각기 승운전·체원전·건극전으로 고쳐졌고 본래의 황금색 기와는 붉은 색으로 새로 칠해졌습니다.

그러나 들뜬 마음도 잠시, 12월 23일 본래 자신을 지지하기로 했던 탕지야오(唐繼堯)와 런크어청(任可澄)으로부터 공화제를 지키고

군주제를 영원히 폐지하라는 전보가 도착합니다. 이어 중화민국 구국군이 조직되어 열렬한 국민지지와 함께 흥헌황제 축출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황제가 되려는 그의 야심을 겉으로만 옹호하고 비밀리에 토벌을 계획한 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위안스카이는 일이 이 지경에 이르게 된 이상 후퇴는 없으며 여의치 말고 일을 신속히 추진해야겠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하여 1916년 1월 1일 예정대로 위안스카이는 새로운 황실의 탄생을 천명합니다. 총통부를 신화궁이라 개칭하고 국호는 중화제국, 연호는 흥헌이라 하여 흥헌황제로 등극한 것입니다. 허나 제위에 오르는 의식은 거행하지 않았습니다. 공화정 존립을 요구하는 대내외의 강력한 주장과 신변을 고려한 탓입니다. 비록 성대한 즉위식은 없었으나, 모든 상소문과 공문서는 흥헌 원년을 기준으로 작성되어야 했으며 중화제국 옥새와 문무관 예복도 만들어져 내부의 구색은 갖춘 제국이었습니다. 하지만 흥헌원년을 쓴 외교문서는 모두 반송되어 돌아왔고 위안스카이는 외세가 두려워 외국에 문서를 보낼 때는 중화민국의 연호를 사용하게 됩니다. 외교활동을 함에 있어서도 황제가 아닌 총통명칭을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되어 중국에는 안으로는 제국이 겉으로는 민국이 공존하여 민국도 아니고 제국도 아니며, 민국이기도 하고 제국이기도 한 이상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동시에 위안스카이는 안으로는 황제이고 밖으로는 총통이어서 총통도 아니고 황제도

아니며, 한편으론 총통이기도 하고 황제이기도 했습니다. 이를 두고 외국 신문들은 그를 ‘황제총통’이라 풍자했습니다(허우 이제 2003, 325).

세 번째 장면: 황제 복장을 한 총통의 장례식

새로운 군주제를 반대한 것은 외국정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1월 1일 중화제국이 선포되자 전국 여러 지방이 독립을 선언했고 호국군이 결성되어 북경을 향해 출병했으며 민중의 들끓는 반대는 새로운 황제를 곤경에 빠트렸습니다. 그는 장군 장신을 설득하여 국내상황의 전세를 역전하려 했습니다만 장신은 청 황실을 다시 세우자는 복벽파로 진심으로 위안스카이를 옹호하지 않던 인물입니다. 장신은 군대를 내보내지 않았으며 오히려 선통연호가 아직 살아있는데 분별없이 황제라 자칭하였으니 룡위태후에게 부끄러운 일이라며 비난했습니다. 청조에 대한 도리를 저버린 위안스카이와 인연을 끊겠다는 친지들의 통보도 그의 심정을 괴롭혔습니다(신동준 2010, 573). 사촌동생 원서정은 “우리는 대대로 청조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총통이 된 것은 보물을 도둑질한 것과 같습니다. 황천에서 태후를 어찌 만나려는 것입니까”라고 불만을 토로했고, 동생들은 “우리는 형제자매의 의를 철저히 끊는다. 군주제가 이뤄져도 부귀공명은 우리와 아무 관계가 없다.

실패해도 그 죄과에 우리는 아무 책임도지지 않는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여러 위협과 반대를 무릅쓰고 감행한 중화제국 선포였지만 제국은 석 달도 채 유지되지 못했습니다. 위안스카이는 3월 22일 군주제 철회명령을 내렸고 23일에는 홍헌연호를 취소했습니다. 민국의 총통이 제국의 황제로 등극했다가 다시 내려오기까지 총 83일이 걸린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지병을 얻은 위안스카이는 실망 속에서 분노와 울화를 이기지 못하고 황제즉위를 선포한지 5개월 하고 5일 만에 운명을 다하게 됩니다. 처음 얻은 병은 방광결석이었는데 서양의원을 믿지 않아 초기에 진료를 받지 못한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요독증으로 병이 악화되자 그는 먹지도 못하고 배뇨도 못해 자리에서 일어날 수조차 없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뒤늦게 프랑스 의사가 치료를 시도했으나 이미 때가 늦어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결국 위안스카이는 6월 6일 새벽 임종을 맞이하였습니다. 시신이 입관될 때 그의 머리에는 황제의 관이 씌어졌고 천제를 지낼 때 입는 예복이 입혀졌으며 붉은색 신발이 신겨졌습니다. 황제의 차림새였습니다. 하남성 안양(安陽)에는 황릉을 연상시키는 위안스카이의 4만평대 묘역이 있습니다. 홍헌연호가 취소되었기에 제왕의 묘지인 능(陵) 대신 성인의 묘지를 뜻하는 림(林)이라 칭해졌으나 공림(공자의묘)과 관림(관우의묘)을 본떠 ‘월림’이라는 특별한 명칭이 붙여졌습니다.

임(Lin)이 능(Ling)과 발음이 같으니 이름은 피하되 실질을 갖자는 계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비록 ‘황제총통’이었지만 중화제국 처음이자 마지막 황제로서의 예우를 받으며 자금성 무대에서 퇴장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여전히 막강한 힘을 가진 그의 측근세력이 주도한 일이었을 뿐, 그는 전국적으로 ‘나라 흠친 도둑’이라 비난 받았습니니다(윤혜영 2016, 121).



▲ 자금성을 나서며 사랑방 7기 학생들이 힘차게 뛰어오르고 있다.

자금성에서 나가며

여섯 가지 장면을 통해 자금성이 만난 두 마지막 황제의 최후는 비슷하면서도 달랐습니다. 푸이에게 자금성이 운명처럼 주어진 ‘집’이라면, 위안스카이에게 자금성은 운명을 걸고 얻어낸 ‘집념의 산물’인 것입니다. 푸이에게 자금성은 애증의 공간이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담 넘어 바깥세상과는 달리 멈추어 있는 자금성의 생각과 사람들에게 회의감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한편 위안스카이에게 자금성은 선망의 공간이었습니다. 권력을 향한 야망은 그를 자금성 총리대신에서 민국 대통령총자리에 앉혔으며 마침내 스스로를 황제로 칭해 황좌에 앉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자금성이 만난 두 황제의 퇴장은 모두 비극이었습니다. 푸이는 짧았던 재위기간에 ‘등극-퇴위-복벽-퇴위’라는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청나라의 열두 명 황제 가운데 유일무이한 일입니다. 자유를 찾아 벗어나고 싶기는 했지만 막상 최후의 통첩으로 떠나게 된 순간에는 다시 옥좌에 앉겠다는 이상을 더욱 확고하게 한 공간이 바로 그가 17년간 주인이었던 자금성입니다. 자금성이 지켜본 위안스카이의 연극 같은 삶 역시 비극입니다. 밑에서부터 황제의 자리에 올라온 그는 위협과 반대를 무릅쓰고 중화제국을 선포하였지만 석 달도 채 유지하지 못하고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황제 옷을 입은 그의 연극은 군중의 열시로 끝을 맺게 된 것입니다. 가족은 등을 돌렸고 세상은 그를 미워했습니다.

‘두 마지막 황제’의 흔적을 찾아 들어간 자금성에서 우리는 청나라의 마지막 황제 선통제 푸이와 중화제국의 처음이자 마지막 황제 흥헌제 위안스카이를 만났습니다. 그들은 20세기 초 격변의 도시 북경의 자금성이라는 같은 무대에서 서로 다른 연기를 펼쳤지만 둘 다 야유를 받으며 퇴장한 비극의 주인공이었습니다. 사랑방 8기가 자금성에 들어갈 때 쏟아진 비와 어두운 하늘은 그들이 섰던 비극무대의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켜 주었습니다. 마침내 두 황제의 흔적을 찾는 여정을 마치고 북문으로 퇴장하자 연극의 대단원이 막을 내리듯 세찬 비 줄기도 함께 그쳤습니다.

참고문헌

- 레지널드 존스틴. 2008. 《자금성의 황혼: 마지막 황제 푸이의 스승 존스틴이 기록 한 제국의 최후》. 김성배 역. 경기: 돌베개.
- 민정기. 2015. “만청시기의 대중매체가 그려 보인 자금성: 재현관행의 변화와 지속.” *한국학 연구* 9월, 31-61.
- 신동준. 2010. 《인물로 읽는 중국 근대사: 부국강병, 변법, 혁명의

- 파노라마》. 서울: 에버리치 홀딩스.
- 신슈밍. 2013. 《자금성, 최후의 환관들: 청 황실이 빚어낸 영광과 치욕의 증언자》. 수주련 역. 경기: 글항아리.
- 신승하. 2004. 《근대 중국: 개혁과 혁명, 중화제국 마지막 왕조의 몰락》. 서울: 대명출판사.
- 옌 총니엔. 2004. 《청나라 제국의 황제들》. 장성철 역. 서울: 산수야.
- 윌리엄 T. 로. 2014. 《하버드 중국사: 청, 중국 최후의 제국》. 김세찬 역. 서울: 너머박스.
- 윤혜영. 2016. “위안스카이, ‘나라 흠친 큰 도둑’에서 ‘훌륭한 위인’까지.” *성균차이나브리프* 5월, 118-122.
- 이블린 S. 로스키. 1977. 《최후의 황제들: 청 황실의 사회사》. 구범진 역. 서울: 까치글방.
- 쥘렌. 2005. 《중국 역사 속의 가장 특색 있는 황제들》. 안명자, 김문 역. 서울: 어진이.
- 푸이. 1988. 《황제에서 시민으로》. 이운양 역. 서울: 문학과 비평사.
- 허우 이제. 2003. 《원세개》. 장지용 역. 서울: 지호.

문명복합 대청제국의 실낙원(失樂園)

_원명원

이하형

연세대학교

들어가는 글

사랑방 답사 둘째 날 아침. 전날 내린 비로 인해 북경에는 안개가 자욱했습니다. 상쾌한 공기와 서늘한 날씨 속에서 우리는 다시 과거로의 여행길에 올랐습니다. 시간여행의 첫 목적지는 동아시아 전통의 천하질서(天下秩序)가 서구 근대의 국제질서(國際秩序)와 ‘충돌’하던 19세기말이었습니다. 서로 다른 시공간에서 형성된 질서가 부딪히면서 발생한 지진파에 의해 동아시아 전통 천하질서의 마지막 ‘수호자’ 대청제국(大清帝國)이 붕괴했습니다.

중화세계의 마지막 제국이었던 청과 흥망성쇠의 길을 함께 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답사지 원명원(圓明園)입니다.

원명원은 문명복합제국으로서 대청제국의 특징을 상징적으로 가장 잘 드러내는 공간입니다. 원명원은 청의 전성기인 이른바 강건성세(康乾盛世)의 토대를 세운 제4대 황제 강희제(康熙帝) 때인 1709년부터 건설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1860년 북경을 점령한 영불연합군에 의해서 약탈 및 방화를 당하기까지 약150년 동안 원명원은 꾸준히 증축되었습니다. 중흥을 꿈꾸던 청은 원명원을 복원하기도 하였으나 1900년 의화단운동을 진압하러 파견된 유럽연합군에 의해서 원명원은 다시 한 번 훼손됩니다. 청은 결국 1911년 신해혁명(辛亥革命)에 의해 역사 속으로 사라졌고 원명원은 폐허가 되어 오랜 시간 방치되었습니다. 이처럼 원명원의 건설과 파괴는 대청제국의 흥망성쇠와 그 궤를 같이 했습니다.

원명원이 대청제국의 역사만을 닮은 것은 아닙니다. 원명원은 유교, 불교, 도교 등 동양의 문화와 더불어 서양식 건축양식이 혼재된 문명복합의 공간이었습니다. 이는 문명복합제국으로서 청이 지닌 특징과 유사합니다. 청은 본래 천하질서에서 ‘오랑캐’로 취급을 받았던 만주족(滿洲族)이 세웠지만 단순히 이민족이 중화(中華)를 점령한 정복왕조가 아니었습니다. 청은 중화제국을 넘어 만주족, 몽골족, 한족을 포괄하는 화이일가(華夷一家)의

세계제국을 지향했습니다(이시바시 2009). 원명원은 다민족 다문화 세계제국으로서 청이 가지고 있던 개방성과 포용성이 응축된 원림(園林)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번 답사를 위해 대청제국과 원명원의 역사를 공부하면서 다음과 같은 의문들이 들었습니다. 청은 왜 기존의 개방성과 포용성을 상실하고 19세기말 서구문명에 대해서는 그토록 경직된 태도를 보였을까? 청이 만주족, 몽골족, 한족의 문화를 복합에 성공하였듯이 서구문명 또한 복합해낼 수는 없었을까? 대청제국이 몰락하는 과정에서 원명원은 왜 파괴될 수밖에 없었을까? 잔해만 남은 원명원 내의 서양루(西洋樓)를 바라보며 그 답을 찾고자 하였습니다.

국치(國恥)의 상징적 공간으로 기억되는 원명원

훗날 중국공산당을 설립하고 마르크스주의의 대부로 추앙을 받게 되는 리다자오(李大釗)는 25살 청년이던 1913년 11월 1일 친구들과 함께 원명원을 찾았습니다. 리다자오는 언덕에 올라 잔해만 남은 쓸쓸한 원명원의 풍경을 바라보며 다음과 같은 시를

남기었습니다(왕룽주 2015, 315).

원명원 두 차례나 오랑캐의 겁난 만났으니
천년 묵은 학은 차마 돌아오지 못하네.
한 곡조 구슬픈 피리소리 다 불지도 못하고
남은 재만 오히려 저녁연기와 날리누나.
아름다운 궁궐과 누각은 푸른 먼지투성이요
금수의 자취만이 황폐한 땅을 달리네.
깨어진 비석 문혔고 궁인은 늙었는데
하릴없이 썩대머리에 묻은 재만 터누나.

圓明兩度昆明劫，
鶴化千年未忍歸。
一曲悲笳吹不盡，
殘灰猶共晚煙飛。
玉闕瓊樓委碧埃，
獸蹄鳥跡走荒苔。
殘碑沒盡官人老，
空向蒿萊撥劫灰。

여기서 두 차례의 ‘오랑캐의 겁난’은 1860년 영불연합군에 의한 1차 파괴와 이후 부분적으로 복원되었다가 1900년 의화단운동 기간 영국, 독일, 이탈리아 등 유럽열강들에 의해 발생한 2차 파괴를 가리킵니다. 리다자오의 시에서는 중화문명이 금수와 같은 서구의 ‘오랑캐’에 의해서 침탈당했다는 의식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이는 서구 제국주의 세력에 의해 몰락했던 중화문명의 부흥을 중국공산당과 중화인민공화국이 이끈다는 소위 ‘100년간의 국치(a century of humiliation)’의 기본적인 역사관이기도 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이 세워진 이후 원명원을 복원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어왔습니다. 아직까지 중국공산당은

원명원을 본격적으로 예전처럼 화려한 모습으로 복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폐허로 남은 원명원을 통해 중국 인민들에게 지난 세기 치욕의 역사를 잊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답사를 했던 장소들 가운데에서도 원명원은 항일전쟁기념관과 함께 중국인 관광객이 유독 많은 곳이었습니다. 아마 그들 가운데 여럿이 무너져 내린 건물들과 황폐한 원명원의 옛터를 보면서 리다자오와 같이 울분을 삼키며 ‘위대한 중화민족의 부흥’을 꿈꾸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 폐허로 남아있는 서양식 석조건물 앞에서.

문명복합의 두 공간, 대청제국과 원명원

원명원을 건설하기 시작한 강희제는 호기심이 참 많은 황제였습니다. 특히 그는 서양의 과학기술에도 큰 흥미를 보였습니다. 예수회 선교사들을 통해서 서양의 천문학, 수학, 의학 등을 접하였습니다. 한번은 의사 출신의 예수회 선교사가 동면하고 있던 불곰을 해부하는 작업에 직접 참여하기도 하였습니다. 프랑스 출신의 선교사인 조아심 부베(Joachim Bouvet)는 자신이 저술한 『강희제전』에서 강희제의 서양문명에 대한 높은 호기심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습니다.

강희제는 서양과학에 남다른 관심을 보이면서 하루에도 몇 시간씩 우리와 함께 하였다. ... 때로는 몸소 기하 수식을 동원해 거리를 측정하거나 야산의 해발과 연못의 넓이를 측정하기도 하였다. 또한 스스로 위치를 지정하고 각종 기기를 동원해 정밀히 계산해냈다. ... 자신이 측정한 결과와 수치가 맞을 때면 한없이 기뻐하였다(엔총니엔 2014, 113-114).

강희제는 또한 자명종을 사용하면서 서양의 과학기술에 대해 감탄하는 시를 짓기도 하였습니다. <자명종을 읊으며>라는 제목의

사에서 강희제는 “그 기술은 서양에서 왔네. 그러나 우리도 배우서 그 기술을 익힐 수 있지”라며 서양의 과학기술을 배우고 익혀서 활용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스펜서 2001, 125). 이처럼 강희제는 서양의 과학기술이 지닌 우수함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거부하기보다는 수용함으로써 중화문명을 더욱 부강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강희제와 마찬가지로 청의 황제들은 서양의 문물에 개방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었지만 동시에 중화세계를 지배하기 위해서는 ‘서양의 오랑캐’들로부터 중국을 보호해야 하기도 했습니다. 즉, 한 편으로는 서구와 교류하면서 또 한 편으로는 중화의 수호자를 자처해야 했던 딜레마를 만주족 황제들은 안고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만주족이 지닌 이민족 출신이라는 태생적 ‘결함’은 청의 황제들에게 늘 커다란 정치적 부담이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민과 노력은 강희제가 1689년 러시아와 맺은 네르친스크조약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대청제국과 러시아제국은 상호 대등한 위치에서 조약을 맺었습니다. 본래의 천하질서는 중국을 정점으로 하는 위계적인 구조이지만 네르친스크조약에서 양국은 평등한 관계로 간주되었습니다. 대신 한족 관리들은 네르친스크조약 체결 과정에서 철저히 배제되었고 강희제는 예수회 선교사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네르친스크조약은 러시아어와 중국어뿐만 아니라 만주어와 라틴어로도 작성되었습니다(크로슬리 2013, 186).



▲ 원명원 내 서양식 미로 정원에 들어서고 있다.

그런데 만주어로 쓰인 만주문본과 중국어로 쓰인 한문본은 내용상 차이를 보입니다. 만주문에서는 청과 러시아가 대등한 관계임이 드러나는 반면 한문에서는 이러한 사실이 은폐되어 있습니다(구범진 2012, 163-168). 다시 말해 네르친스크조약은 1648년 유럽에서 형성되기 시작한 주권평등의 ‘베스트팔렌체제’가 유라시아 동쪽 끝으로 전파되어 나타난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오랑캐 출신’이라는 정체성을 안고 있던 청은 중화세계의 수호자를 자처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내적으로는 네르친스크조약을 서구 근대의 국제질서가 아니라 전통 천하질서 하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포장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강희제의 뒤를 이은 옹정제(雍正帝)는 중국사에서 가장 이상적인 절대독재군주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미야자키 2001, 25). 옹정제는 군주제를 강화하면서 적극적인 한화(漢化)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한화정책이 심화될수록 ‘오랑캐’라는 만주족의 정체성과 중화사상이 충돌하여 모순을 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옹정제의 노력이 『대의각미록(大義覺迷錄)』의 간행과 반포였습니다.

『대의각미록』은 대의를 통해서 청의 정통성에 대한 미혹을 일깨운다는 뜻으로 ‘오랑캐’인 만주족이 중화에게 보내는 답변이었습니다. 『대의각미록』은 황제가 직접 재판에 참석하여 청을 오랑캐가 세운 국가라며 비판하는 죄인을 문책하는 형식입니다. 황제는 반청(反淸)사상에 대해서 조목조목 비판합니다. 황제는 청을 아직도 ‘오랑캐’의 나라로 여기는 자들을 꾸짖는데, 그 내용을 요약하면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이시바시 2009, 245-246).

하늘은 중국 내지에 유덕한 자가 없어졌기 때문에 우리 바깥의 오랑캐를 중국 내지의 군주로 삼은 것이다. 어찌하여 안을 중국이라 하고 밖을 이적이라 하는 것인가? 우리 청조가 군주가 되어서 중국 내지에 들어와 천하에 군림한 이래, 몽골을 병합함으로써 변경에 살던 여러 부족이 모두 판도 안으로 귀복했다. 이것은 중국의 영토가 개척되어 멀리까지 넓어진 것과 다름없다. 이것은 곧 중국의 신민에게는 위대한 행운일 뿐 그 무엇도 아니다. 어찌하여 아직도 화이(華夷), 중외(中外)의 구분이 있다고 논할 의미가 있는 것인가?

옹정제는 대청제국의 ‘중화적 정통성’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청이 중화세계의 수호자로서 그 위상을 확고히 할수록 바깥 세계에 대한 개방성은 떨어져갔습니다. 중외(中外) 출신으로서 중국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자 이를 지키기 위해서는 다른 중외를 배척할 수 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청의 최고 전성기였던 건륭제(乾隆帝) 시기에 들어서면 청은 서양에 대한 종래의 유연성을 상당 부분 잃어버리고 경직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를 잘 보여주는 사례가 삼궤구고두의 예를 둘러싸고 매카트니사절단(Macartney Mission)과 건륭제가 벌인 ‘실랑이’입니다. 건륭제는 매카트니사절단을 지구 반대편의 영국 여왕이 자신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보낸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그들에게 천자(天子)에 대한 예를 갖출 것을

요구했습니다. 건륭제는 또한 강희제와 달리 서구의 문물이 청에 불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교역을 요구하는 매카트니에게 건륭제는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습니다.

사해의 문물을 다스리는 천조는 정부의 일을 잘 처리하는 것에만 집중할 뿐이며, 희귀하고 값비싼 것에는 가치를 두지 않는다. ... 우리는 기발한 물품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으며, 너희 나라의 상품이 조금도 필요하지 않다(엘리엇 2011, 305).

건륭제는 또한 서구열강들을 동등한 제국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서구열강들을 천하질서 안에서 중화의 바깥에 존재하면서 조공을 바치는 ‘오랑캐’로 인식하였습니다. 건륭제는 한 시에서 “포르투갈이 옛날 직공을 닦더니 잉글랜드가 오늘 신성을 바치네”라며 자신의 치세로 중화세계가 절정에 달했음을 뽐내기도 하였습니다(왕룡주 2015, 179).



▲ 원명원 내 호수 앞에서.

비록 건륭제는 매카트니에게 서구의 문물이 조금도 필요하지 않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원명원 안에 대규모의 서양식 건축물들을 세운 황제는 바로 건륭제였습니다. 유럽식 궁전과 정원을 원명원에 지음으로써 건륭제는 청이 이끄는 중화문명이 서양세력까지 천하질서에 편입시켰음을 자랑하고 싶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청의 전성기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건륭제가 사망한 1799년 이후 청은 급격히 쇠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부강하던 청은 불과 60여년만에 수도 북경이 함락당하고 황제가 피난을 떠나는 상황에까지 내몰렸습니다.

동서양의 건축물들이 혼재되어 문명복합제국으로서 청을 상징하던 원명원은 1860년에 영국과 프랑스 군인들의 군화에 짓밟히고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당시 황제였던 함풍제(咸豊帝)는 원명원이 영불연합군에 의해서 소실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진노하였고, 그 상실감 때문이었는지 이윽고 사망하였습니다. 이후 대청제국은 서구열강들에게 ‘불평등 조약’을 강요당하였고 반(半)식민지 상태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대청제국과 원명원, 두 문명복합공간은 흥망성쇠를 함께 했습니다.



▲ 서양루 앞에서 진행된 발제.

나오는 글

원명원이 영불연합군에 의해서 약탈과 방화를 당했다는 소식이 유럽에 알려지자 지식인들 사이에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그 중 가장 유명한 것이 프랑스의 대문호 빅토르 위고(Victor Hugo)가 1861년 버틀러(Butler) 대위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Hugo 1861). 빅토르 위고는 청의 원명원은 그리스의 파르테논, 이집트의 피라미드, 로마의 콜로세움, 파리의 노트르담과 같은 인류 공동의 문화유산이라고 강조하며 영불연합군의 행위를 ‘문명’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진 ‘야만’의 행위라고 비판하였습니다. 빅토르 위고가 버틀러에게 보내는 편지가 그의 흉상과 함께 원명원 내에 동판에 새겨져 전시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중국인 관광객들이 원명원을 찾아서 150년전 서구가 ‘문명’이라는 이름으로 중국에게 저지른 ‘야만’의 행위를 잔해만 남은 원명원을 통해 생생히 목격하고 있습니다.

문명복합의 세계제국을 지향했던 대청제국은 ‘오랑캐’라는 출신의 결함을 극복하고 천하질서의 수호자를 자처하는 과정에서 결국 중화세계에 스스로를 가두는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청은 초기에 보여준 타문화에 대한 개방성과 포용성을 상실하고 점차 외부세계에 대해서 경직된 모습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19세기 중엽 부국강병에 성공한 서구세력들의 접근에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결과 동아시아 전통 천하질서와 서구 근대 국제질서가 충돌하는 가운데 ‘서구와의 만남’은 ‘서구로부터의 충격’이 되어 청의 붕괴를 가져왔습니다. 그리하여 한때는 동서의 문물을 모두 간직한 지상의 낙원(樂園) 원명원은 이제는 잔해와 먼지만 쓸쓸히 날리는 낙원(落園)이 되어버렸습니다.

대영제국은 대청제국과 1858년 천진조약을 체결하면서 외교문서에 더 이상 오랑캐를 뜻하는 이(夷)를 쓰지 못하도록 강력히 요구하여 결국 관철시켰습니다. 이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누가 문명이고 누가 야만인지 그 표준을 둘러싼 동아시아에서의 싸움은 19세기 후반 일대 전환을 맞이하였습니다(Liu 2004). 두 차례에 걸친 원명원의 파괴는 동서양의 세계관 충돌이 폭력적으로 나타난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중국의 급부상으로 다시 한 번 동서양 사이의 문명의 표준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이 재현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19세기의 상황이 21세기에 반복되지 않도록 18세기 문명복합의 공간이었던 원명원을 새롭게 설계해야 합니다. 특히 동서가 교차하고 고금이 중첩되어 있는 한반도에 사는 우리들이 21세기의 ‘원명원’을 누구나 들어와서 살고 싶은 시공간으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문헌

구범진. 2012. 《청나라, 키메라의 제국》. 서울: 민음사.

미야자키 이치사다. 2001. 《옹정제》. 차혜원 역. 서울: 이산.

옌 총리엔. 2014. 《청나라, 제국의 황제들》. 장성철 역. 서울: 산수야.

왕룽주. 2015. 《잃어버린 낙원 월명원》. 김승룡, 이정선 역. 서울: 한숲.

조너선 스펜서. 2001. 《강희제》. 이준갑 역. 서울: 이산.

마크 엘리엇. 2011. 《건륭제 - 하늘의 아들, 현세의 인간》. 양휘웅 역. 서울: 천지인.

패멀라 카일 크로슬리. 2013. 《만주족의 역사 - 변방의 민족에서 청 제국의 건설자가 되다》. 양휘웅 역. 파주: 돌베개.

Liu, Lydia He. 2004. *The Clash of Empires: The Invention of China in Modern World Making*.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Hugo, Victor. 1861. "A Letter to Captain Butler." Accessed on 7 July 2017. <https://www.napoleon.org/en/history-of-the-two-empires/articles/the-chinese-expedition-victor-hugo-on-the-sack-of-the-summer-palace/>

서태후의 욕망이 집대성된 공간

_이화원

김미현

중앙대학교

들어가며

자금성으로부터 북서쪽으로 12km 떨어진 곳에는 이화원(頤和園)이라고 불리는 황실 정원이 있습니다. 이화원은 1750년 건륭제(乾隆帝)가 어머니의 환갑을 기념해 조성하였던 청의원(淸漪園)이 전신입니다. 1860년 영불연합군의 침략으로 전소되자 서태후의 주도 하에 1884년부터 10여 년간 복구 공사를 지속하면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모습으로 거듭납니다. 당시 황제였던 광서제(光緒帝)는 이양충화(頤養衝和; 양생과 온화함을

추구한다는 뜻)라는 표현에서 이화원이라는 이름을 짓게 됩니다.

이화원 곳곳에 자리한 전각들 앞뒤로 서로의 존재를 뽐내는 곤명호(昆明湖)와 만수산(万寿山) 또한 이 곳의 아름다움을 더해줍니다. 곤명호는 약 300만 제곱미터로 여의도와 비슷한 크기를 자랑하고, 만수산은 곤명호를 파낸 흙을 쌓아 만들었다고 하니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는 곤명호를, 뒤로는 만수산을 아우르며 상당한 규모를 자랑하는 이화원에는 여러 이야기들이 전해지는데, 대표적으로 서태후(西太后)가 이화원의 재건을 위해 청일전쟁 당시 해군력 증강을 위해 쓰여야 했던 자금을 횡령했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국가의 패망을 앞당기는데 일조했을 이화원이 오늘날에는 중국을 대표하는 명소가 되어 북경을 찾는 이들이라면 반드시 들러야 할 곳이 되었으니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이화원이 유명한 이유는 청나라 최후의 권력자였던 서태후가 말년에 거쳐하였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서태후의 권력의지와 개인적 관심사가 잘 결합된 곳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5천년이 넘는 중국 역사에서 여성이 국가를 이끌었던 것은 상당히 드문 일이었습니다. 왕조시대에 궁궐에서 생활하던 황태후를 비롯한 여성들은 한정된 공간으로부터 나오지 않는 것이 미덕이었고, 그러한 고정관념과 편견을 뛰어넘은 여성은 비난의 대상이 되곤

했습니다. 비난을 무릅쓰고 이를 깨는 일은 강한 자기확신과 권력의지가 필요한 일이었습니다(이영옥, 2015, 286). 그렇기 때문에 이화원과 같이 여성의, 여성에 의한, 여성을 위한 대규모의 공간이 독립적으로 존재했다는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서태후는 물리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여성에게 제한되어 있었던 궁궐이라는 공간을 역으로 정치 공간으로 나아가는 발판으로 삼았습니다. 아들을 회임 후 출산함으로써 일개 궁녀에서 단숨에 의귀비로 지위가 상승한 그녀는 어린 아들이 황제로 책봉된 상황을 이용하여 수렴청정을 시작하기에 이릅니다. 모후라는 지위를 십분 활용하여 권력을 거머쥔 후에는 동치제(同治帝)와 광서제 뒤에서 실질적으로 청나라를 이끌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여성들이 빛을 받지 못하고 사라진 것과 대조적으로 서태후는 남성 중심적 질서에서 자신만의 권력을 구축하고 그 범위를 확장시키는 데 성공하였던 것입니다.

이화원에서 서태후의 발자취를 찾다

북경에 있는 동안 계속 비가 온다는 일기예보를 보고 걱정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 이화원을 방문하는 동안에는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흐린 날씨의 여파로 관광객이 많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예상과 달리 많은 이들이 이화원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화원에 도착하여 광서제의 친필로 적힌 현판을 보면서 넓은 공간을 어떻게 하면 잘 소개할 수 있을지 고민했던 시간이 머리 속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설렘과 긴장을 안고 이화원 동궁문(東宮門)으로 들어선 저희를 반긴 것은 인수문(仁壽門)과 인수전(仁壽殿)이었습니다. 인수전은 서태후와 광서제가 정사를 보고 외교관들을 접견하는 등의 집무 목적으로 사용되었던 공간이었습니다. 또한 1898년 광서제가 본격적인 ‘제도적 개혁’을 선언하고 Kang유웨이(康有爲)를 개혁 고문으로 임명하면서 변법자강운동(變法自強運動)의 기틀을 마련하였던 곳이기도 합니다.

연극을 상당히 좋아했던 서태후는 실제로 여러 예술가들을 덕화원으로 불러 공연을 즐겨보았다고 합니다. 중국 황실 최대 규모를 자랑했던 극장인 덕화원은 이화원에서도 서태후가 특히 즐겨 찾았던 공간이었을 것입니다. 저희도 서태후의 발자취를 따라 덕화원(德和園)에 방문하고자 하였으나 아쉽게도 출입구를 찾지 못해 돌아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 인수전(仁壽殿)

다음 행선지는 광서제의 부인이자 서태후의 질녀였던 용후 황후가 기거하였던 의운관(宜芸館)이었습니다. 서태후는 광서제를 제압하기 위해 반대에도 불구하고 조카딸과 광서제를 혼인시키는데 성공합니다. 이후 서태후에 대한 광서제의 반감은 증폭된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저희는 아쉽게도 방문하지 못하였지만, 의운관의 남쪽에는 광서제가 이화원에서 사용하였던 침실이자 1898년 무술정변 이후 광서제가 유폐되었던 곳인 옥란당(玉瀾堂)이 있습니다. 한평생 서태후의 영향력 하에서 움츠러든 채 살았던 광서제에게 이화원은 잔인하고도 슬픈 역사가 깃든 곳이 아닐 수 없습니다.



▲ 연꽃이 핀 곤명호(昆明湖)

의운관을 나와 장랑(長廊)으로 향하는 길에 연꽃으로 수놓아진 곤명호가 보였습니다. 끝을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넓은 곤명호는 여름의 분위기를 머금어 더욱 아름다웠습니다. 곤명호를 따라 난 좁은 길을 따라 걷다 보니 중국 전통 화원의 모든 복도 중 가장 길다고 알려져 있는 장랑에 도달하였습니다.

장랑은 건륭제가 여름에 비가 오거나, 겨울에 눈이 오더라도 어머니가 정원을 산책할 수 있도록 조성한 공간입니다. 이를 복원한 서태후 또한 이화원의 주인으로서 제약없이 거닐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장랑은 배운문(排雲門)을 중심으로 두 편으로

나뉘며 총 728m의 긴 길이를 자랑합니다. 장랑의 내부에는 중국 전통 소설, 민화, 풍경 등 다양한 내용을 담은 8천여 개 이상의 그림들로 장식이 되어 있어 그 아름다움을 더하였습니다. 저는 19세기 말 서태후가 거닐었을 장랑의 끝자락과 배운문이 만나는 지점에서 본격적인 발제를 시작하였습니다.



▲ 장랑(長廊)에서 진행된 발제

개인적 특성과 주변 환경의 결합

서태후는 중국 중심의 세계관과 서양의 제국 질서가 충돌했던 격동의 19세기를 살며 중국을 이끌었던 여걸들 중 가장 변화무쌍한 경험을 했습니다. ‘사치스러운 악녀’와 ‘중국의 근대화에 기여한 지도자’라는 극과 극의 평가를 받을 만큼 다양한 해석의 여지를 남겨놓기도 했습니다. 저 스스로도 그녀에 대해 탐구해보기 전까지는 ‘현실 자각은 하지 못한 채 향락만을 쫓았던 권력자’ 정도로만 인식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기억하는 단면적인 서태후가 아닌, 권력자로서의 서태후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고민하는 것은 흥미로운 작업이었습니다.

서태후의 개인적 관심사와 성격이 그녀의 권력을 만드는 데 일조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서태후는 자신이 권력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수렴청정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녀는 동치제의 사망 이후에도 수렴청정을 지속하기 위해서 아래 세대가 후사를 잇는 관습법적 승계 방식을 폐지하고 황제와 같은 세대의 인물을 임명할 수 있다는 결정을 발표합니다(Rawski, 2001, 127). 황제의 모후로서 황제 ‘임명권’을 갖게 된 서태후에게로 권력이 집중된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위치를 적절히 이용할 줄 알았을 뿐만 아니라, 정치에 대한 관심, 주변 정세 판단, 적당한 때를 노린 권모술수 등

자신의 야심을 추동할 만한 자질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서태후는 권좌를 유지하기 위해서 권신들을 ‘관리’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을 것입니다. 특정 정치세력이 비대해져 자신의 위치를 넘볼 수 없도록, 세력 간 상호 견제를 통해 균형을 조절하는 데 상당히 능숙한 면모를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리아오 2009, 101).

서태후가 권력을 유지할 수 있었던 데에는 주변 환경 또한 강력하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서태후는 ‘부모-자식’이라는 관계성에서 도출한 메타포를 영리하게 이용하였습니다(Ling 1994, 400). 그녀가 집권한 이래로 제국 내 권위의 원천으로 상징화되는 태후와 도제식 황제(Apprentice-ruler)로서 존재하는 어린 황제, 그리고 황실의 엘리트였던 종친과 대신들이라는 세 가지 요소가 구축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서태후 정권의 두드러지는 특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Kwong 2000, 673). 이러한 체계는 황실을 최고로 받드는 당대의 인식과 관료들의 결집과 지지 덕분에 가능하였습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금지되었던 수렴청정이 서태후에 이르러서 하나의 시스템처럼 공고화된 것은 이 제도를 수면 위로 올리고 실행될 수 있도록 견인했던 서태후 주변의 관료들이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은 서태후가 정치에 개입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았고, 서태후의 권력에 영합하여 서로를 지탱하며 세력을 키워 나가는 방향으로 성장하였던 것입니다.

신유정변, 서태후의 화려한 등장을 알리다

1861년에 발생한 신유정변(辛酉政變)은 서태후의 인생의 경로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신유정변은 서태후와 공친왕이 합작하여 어린 황제를 보필하기 위해 ‘찬양정무왕대신’에 임명되었던 숙순, 재원, 단화 등을 처형하고 수렴청정 체제를 성립시킨 정변입니다(표교열 1985, 58). 중국사학자 우상샹(吳相湘)은 “1861년 신유정변이 없었다면, 1898년의 무술정변도 없었을 것” (Kwong 1983, 221-222)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신유정변이 청 말기 제국에 끼쳤던 영향은 지대하였습니다.

신유정변이 일어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서태후는 의귀비의 신분에 머물렀습니다. 정변의 불씨는 어린 황제를 대신해 황태후가 임조칭제(臨朝稱制)하고 황제의 혈친이 보정대신체제에 합류해야 한다고 주장한 동위안천(董元醇)의 상주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황후 유희록씨와 의귀비가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것과 달리 8명의 대신들은 함풍제의 유조와 청조의 조법을 내세워 강력하게 저항하였고, 수렴청정을 강행할 시 파업도 서슴지 않겠다고 반기를 내걸었습니다. 권력을 독점하고자 했던 대신들의 의지가 표출된 것입니다(김성찬 2012, 177-178).

수렴청정 체제를 밀어 부칠만큼 충분한 권력이 없었던

서태후는 정변을 실행할 추동력을 얻기 위해 함풍제 대신 당시 북경에서 사무를 대신 관장하던 공친왕과 손을 잡습니다(김성찬 2012, 205). 두 달간 준비한 정변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 그녀는 열하에 있던 대신들을 공친왕의 근거지인 북경으로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들의 관직을 박탈하여 정변을 제외한 모든 정치적 가능성을 차단하였습니다. 북경에 도달한 지 6일만에 8명의 대신들을 모두 처별함으로써 무혈에 가까운 정변에 성공하게 됩니다.

서태후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새로운 체제를 이끌어 낼 수 있음을 깨닫고 자신이 처한 상황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자신에게 배타적이지 않은 다른 정치 세력을 판에 끌어들이었습니다. 공동의 이해관계를 조성함으로써, 게임을 더욱 승산이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 간 것입니다. 신유정변의 성공은 청 왕조에서 전례가 없었던 수렴청정이라는 ‘제도적 실험’을 가능케 하였을 뿐만 아니라 권력의 정점으로 나아가도록 만든 기제가 되었습니다 (Kwong 1983, 221-222).

신유정변을 일으키며 정치적 야망을 자신이 가진 자원과 주변 환경을 이용하여 표출해내는 데 성공한 서태후는 27세의 나이에 어린 동치제를 대신하여 혼란스러웠던 정국을 휘어잡습니다. 서태후라는 명칭도 이때 생겨납니다. 북경에 돌아온 이후, 동치제가 즉위하면서 황후 유희록씨에게는 자안태후(慈安太后),

의귀비에게는 자희태후(慈禧太后)라는 명칭이 부여됩니다. 자안태후가 동쪽 궁궐을 사용하고, 자희태후는 서쪽 궁궐을 사용하면서 각각 동태후, 서태후라 불리게 된 것입니다. 이후 몇 년 간 공친왕의 도움으로 국정 운영 능력을 기른 것도 잠시, 서태후는 함께 정변에 가담하였던 공친왕을 누르고 명실상부한 자금성의 최고 권력자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무술정변, 복귀에 성공하다

서태후는 동치제를 대신한 첫번째 수렴청정 기간 동안, 쩡귀판(曾國藩), 리홍장(李鴻章), 쥐종탕(左宗棠) 등 한인 실력파를 여럿 등용하였습니다. 이들을 통해 군수 산업을 일으켜 기술을 도입하고 공업과 통신 및 운수 설비를 갖추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국가를 부강하게 만들려던 노력은 내우외환이 줄어들고 국세가 회복되는 동치중흥(同治中興)의 시기를 불러왔습니다. 그러나 일시적인 미봉책으로 청이 당면한 고질적인 병폐를 해결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1889년 서태후는 동치제의 뒤를 이어 권좌에 오른 광서제가

성인이 되자 친정을 선포하고 자금성을 떠나 이화원으로 거처를 옮깁니다. 광서제에게 친정은 서태후의 그림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두 번의 아편 전쟁과 20여 년간 지속된 국내 반란으로 몸살을 앓은 청은 1894년 다시 한번 예상밖의 패배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세를 예상했던 것과 달리 신식무기를 앞세워 전방위로 압박하는 일본에 속수무책으로 당했던 것입니다. 이전까지 천천히 그리고 성공적으로 충격을 회복해가는 것처럼 보였던 청조에게 또 다른 재앙이 닥친 것이었습니다. 청일전쟁은 무너지기엔 너무 강했고, 다시 재건하기에는 너무 약했던 청의 속살을 드러냈습니다(Tan 2014, 420).

청일전쟁 패배의 여파에서 벗어나 여러 개혁을 시도하던 광서제는 1898년 청이 가지고 있던 취약점들을 극복하고 서태후를 권력의 변방으로 밀어내고자 근본적인 개혁을 시도하게 됩니다. 제대로 훈련 받지 못한 군인, 줄어드는 자원, 숙달되지 않은 기술자와 기술에 무지한 학자들을 가지고는 강력한 군대를 보유한 외세의 위협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등 전방위를 대상으로 하는 개혁을 실행하기 위해 변법파의 대표 주자였던 Kang Youwei와 Liang Qichao(梁啟超) 등의 인물을 등용하였습니다. 광서제는 관료들과 고문의 도움을 받으며 서태후로부터 거리두기에 성공하는 듯 보였으나 많은 이들의

이해와 충돌하게 되면서 제도적, 정치적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한편, 자금성을 떠나 이화원으로 거처를 옮기며 권력의 뒷전으로 물러난 것처럼 보였던 서태후는 사치와 향락을 일삼는 동시에 권력의 궤도에 재진입하기 위한 칼날을 갈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측근들을 통해서 황제와 변법파들이 피하고 있는 개혁의 흐름을 알고 있었고, 이것이 '자신'의 국가와 권력에 위협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보수 세력을 규합해 개혁을 멈추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서태후를 정치 일선에서 완전히 배제시킨다는 변법파의 계획이 위안스카이(袁世凱)의 밀고를 통해 수면위로 드러나면서 서태후는 정변을 일으킬 당위성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신유정변 때와 마찬가지로 자신이 펼칠 정치적 행동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광서제의 개혁으로 인해 생긴 정국의 혼란을 수습한다는 명분으로 관료들의 지지를 얻고자 했습니다(이영옥 2015, 290-291).

밀고를 받아 든 다음 날, 서태후는 광서제를 서원의 영대에 유폐시켰습니다. 이어 변법파인 탄시통(譚嗣同)을 비롯한 6명을 처형했으며, 해외로 달아난 Kang유웨이와 량치차오가 도입한 무술변법을 모두 폐지합니다. 이 것이 바로 서태후의 공식적인 정계 복귀를 알리는 1898년의 무술정변(戊戌政變)입니다. 정변의

성공은 서태후의 권력과 영향력을 재차 확인할 수 있는 기회이자, 서태후를 정치영역에서 완전히 밀어내려는 변법파의 시도가 물거품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였습니다. 나름대로 중국의 근대화를 위해 노력했던 광서제의 개혁은 안타깝게도 바람 앞의 촛불처럼 꺼지게 됩니다. 새롭게 정권을 쥔 서태후는 사망할 때까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근대의 문턱에서 청의 앞날을 결정짓는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 이화원 앞에서의 단체사진.

서태후의 숨결을 뒤로 하고

여름 궁전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여름의 문턱에 접어든 이화원 곳곳에 녹음이 짙어 가고 있었습니다. 짧은 시간에 걸쳐 발제를 마친 후, 배운문 앞에서 이화원 어느 곳에서나 고개를 들면 볼 수 있다는 불향각(佛香閣)과 그 위로 켜켜이 쌓인 전각과 궁전들을 조망한 후 다시 긴 장량을 걸어 나왔습니다. 미로 같은 이화원을 정신없이 걷다 보니 서태후의 생활 공간이었던 낙수당(樂壽堂)을 미처 보지 못한 채 입구였던 동궁문에 돌아왔습니다.

서태후의 삶은 ‘악녀’라는 단면적인 표현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복잡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가졌던 자원을 활용하여 일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정변을 그것도 두 번이나 주도하여 성공적으로 이끌고, 반세기 가까운 시간을 청 제국의 최고 권력자로 군림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서태후의 역량에도 분명한 한계가 존재합니다. 국내외의 객관적인 여건을 읽는 데 실패한 결과는 청의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뼈아픈 실수를 낳았고, 지나친 사치와 향락은 그녀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서태후에 대한 대중의 평가는 비판보다는 비난에 가까웠습니다. 이제는 지금껏 쉽게 받아들였던 일반적인 평가 대신, 지금까지 잘 드러나지 않았던 그녀에 대한 새로운 조각들을

맞추며 복합적인 평가를 내릴 때입니다. 저는 이번 발제가 서태후에 대한 복합적 평가를 내릴 수 있는 시작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전하며 이화원을 뒤로 하고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참고문헌

- 김성찬. 2012. “신유정변(辛酉政變(1861))과 태후대권론(太后大權論).” <역사와경계> 82, 175-241.
- 리아오. 2009. 《서태후의 인간 경영학》. 강성애 역. 서울: 지식여행.
- 이영옥. 2015. “1900년 전후 자희태후의 불안, 걱정 그리고 권력.” <명칭사연구> 44, 281-307.
- 표교열. 1985. “서태후정권(西太后政權)의 성립과정(成立過程)에 대하여.” <동양사학연수> 21, 57-104.
- Kwong. Luke S. K. 1983. “Imperial Authority in Crisis: An Interpretation of the Coup D'état of 1861.” *Modern Asian Studies*, 17(2): 221-238.
- _____. 2000. “Chinese Politics at the Crossroads: Reflections on the Hundred Days Reform of 1898.” *Modern*

Asian Studies, 34(3): 663-695.

Ling, L. H. M. 1994. "Rationalizations for State Violence in Chinese Politics: The Hegemony of Parental Governance." *Journal of Peace Research*, 31(4): 393-405.

Rawski, Evelyn. S. 2001. *The Last Emperors: A Social History of Qing Imperial Institutions*,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Tan, Koon San. 2014. *Dynastic China: An Elementary History*, Petaling Jaya: The Other Press.

추사의 연행: 짧은 만남 긴 여운

_유리창

박민주

서울대학교

추사의 연행을 보는 관점

서예가로 이름 높은 추사 김정희(秋史 金正喜; 1786~1856)는 학자이자 화가이기도 했던 다재다능한 인물입니다. 어릴 때부터 글과 글씨에 뛰어났고 문인으로 성장하고 있던 추사는 24세 되던 1809년 사마시에 합격해 생원이 되었습니다. 이때 생부 김노겸이 동지부사로 선임되어 북경에 가게 되면서 추사는 자제군관 자격으로 아버지를 따라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제군관이란 외교관의 아들 등을 개인적으로 수행하게 하여 외국 견문을

익히게 하는 제도로 비교적 자유롭게 그곳 문물을 접할 수 있는 위치였습니다(유홍준 2006, 37-38).



▲ 유리창의 한 찻집에서 진행된 발제.

추사의 연행에 관련된 논의를 살펴보면 한쪽에서는 추사가 대등하고 주체적인 입장에서 청 문화를 접했다고 보고, 다른 관점에서는 청 문화에 매료되고 압도되었다고 봅니다. 전자는 추사를 만난 인사들이 그의 학식에 경탄했다는 점을 부각합니다. 추사는 청의 석학들에게 조금도 굽히지 않고 토론을 벌일 수 있었고(김정희 2014, 16) 조선의 위상을 높이는 데에 기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외국에서 배운 지식을 자기화하는 노력을 끊임없이 기울였으며 자신의 성과를 다시 청 학계에 전하여 국제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는 것입니다(유홍준 2006, 68). 하지만 젊은 추사가 자신의 의견을 굳건하게 가지고 대등한 위치에서 청조 문화를 접하기보다는 매료되고 압도되는 면이 크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한편 동주는 추사의 연행과 청조 문인과의 교류가 추사의 뛰어난 천재성을 보여주는 일종의 신화로까지 각색된다는 점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추사가 북경에서 청 학문에 상당히 압도당했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완당의 입연(入燕)이 중요한 것은 옛 그림, 옛 글씨에 있어서 젊은 추사가 상국(上國)의 대관이기도 한 노석학의 지기(知己)에 감격하여 옹방강·옹성원 부자의 금석비첩학(金石碑帖學)과 동파풍(東坡風)의 문인취미에 경도하게 된 점이다.”(이동주 1996a, 314-353) 이 관점에서 추사의 연행은 추사가 청 학문과 문화에 흠뻑 젖어들어 청 문화 수용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추사의 평생에 걸친 중국 학술·문화 공동체와의 교류를 촉발한 북경 지식인들과의 만남의 현장을 재현해보고, 연행 당시의 추사가 어떤 모습에 가까웠을지 살펴보고 싶습니다. 추사의 연행 이전에 이루어진 한중 지식인 교류를 소개하고

추사와 오랜 인연으로 맺어진 스승과 친구들을 만나볼 것입니다.

한중 지식인 교류와 추사

이번 사랑방 답사에서 방문한 북경 유리창(琉璃厂)은 18세기 한중 학술교류의 중심지였습니다. 유리기와를 만드는 공장 때문에 이름이 붙여지고 동서로 2리 남짓 된 유리창 거리는 북경 성 남쪽 밖 정양문과 선무문 사이에 있던 고서점가로서 18세기 건륭제의 사고전서 간행 칙령 이후 문화거리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이홍식 2013, 21). 조선의 연행 사절들은 해마다 북경에 방문해 이 거리에서 각종 서적을 비롯한 물품을 구매했습니다. 유리창 거리는 당시 중국 문화 수입과 한중 지식인 교류의 최전선이었고, 과거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전국에서 모여든 사람들도 서점가 활성화에 기여했습니다(정민 2013).

유리창 서점에서 구매한 청과 서양의 최신 서적들, 그리고 이곳에서 이루어진 한중 지식인들의 교류는 조선의 학문, 문학, 예술과 일상에 다양한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1765년 겨울 홍대용이 유리창을 찾았고, 1778년 여름에 유득공, 박제가와

이덕무가, 1780년에 박지원이 방문했고, 1790년 유득공과 박제가가 다시 유리창을 찾았습니다(이홍식 2013). 유리창을 매개로 한 한중 지식인 교류의 흐름 속에서 추사와 중국 지식계의 만남도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부지런히 도서와 자료를 수집하던 추사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변화한 유리창 거리를 활보하며 청의 문물을 접하고 사람들과 교류하였을 것입니다.



▲ 유리창 거리에서.

추사는 1786년 충청도 예산에서 태어났고, 고향을 떠나 한양에 있는 큰 자택에서 경학 연구에 힘을 기울이며 서예에 심취했습니다. 추사는 15세 무렵 뛰어난 재주를 초정 박제에게 인정받아 가르침을 받게 되었고, 북학파의 석학으로부터 북경의

문물과 학예 활동에 대해 듣고 동경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유홍준 2006, 33). 중국을 세 차례 여행하고 청조 문화를 잘 이해하고 있었던 초정은 어린 영재인 추사에게 북경 학계의 소식을 들려주며 꿈을 불어넣었고 “제2의 자신을 소생하고자” (후지츠카 치카시 2009, 138) 했습니다.

추사는 여행 이전부터 중국 문인들과의 만남에 대한 동경을 키우고 청조 학문과 예술의 동향에 대한 상당한 지식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개연히 특별한 생각이 일어, 세상 밖 지기를 사귀고 싶다. 만일 마음 알아주는 이를 만난다면, 목숨을 내줄 수도 있네. 북경에는 명사들이 많아, 부럽기가 그지없네.” (후지츠카 치카시 2009, 68) 박제가는 영리한 제자가 북학에 뜻을 세운 것을 기특하게 여기며 자신이 북경에 갔을 때 만난 젊은 학자인 조강에게 추사의 이 시를 보여주었습니다. 추사는 1809년 10월 28일 아버지를 따라 북경으로 출발해 두 달 동안 머물렀고 이듬해 3월 귀국하여 4개월여의 여정을 마쳤습니다.

담계 옹방강의 석목서루

담계라는 호를 쓴 옹방강(翁方綱, 1733~1818)은 직예 대흥 사람으로, 한림원 편수가 되어 《사고전서》 편찬에 참가했으며 소동파를 깊이 흠모하였습니다(후지츠카 치카시 2009, 149-150). 동주는 옹방강은 당시 청조에 유행하던 고증학보다는 송나라 때의 성리학에 가까운 설을 가지고 있어 추사와 호응이 되었다고 말합니다(2006b, 288). 옹방강은 금석학과 서첩학의 태두였지만 경학 연구에서도 탁월한 견식을 갖추고 있었고, 한학만을 신봉하는 유학자들의 주장을 비판했습니다(후지츠카 치카시 2009, 173).

박제가도 일찍이 석묵서루에서 옹방강을 만난 적이 있었고 귀국 후 종종 편지로 생각을 전했습니다(후지츠카 치카시 2009, 151-153). 추사도 스승으로부터 옹방강의 높은 학식에 대해 일찍이 듣고 나서, 북경에 도착하여 조강 등 문인들을 만나 인맥을 넓히며 옹방강을 만나 배움을 얻을 소망을 내비쳤을 것입니다. 추사는 담계의 제자의 안내를 받아 석묵서루에서 경전 연구에 힘쓰고 있던 옹방강을 방문했습니다. 25세의 추사를 만났을 당시 학계의 대가인 옹방강은 78세의 봄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후지츠카 치카시 2009, 149-155).

담계는 연로하였지만 예리한 눈과 손, 열정을 보여주어 추사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소재(옹방강)가 설날 참깨 위에 ‘천하태평’이라는 네 글자를 썼는데, 그때 소재의 연세가

일흔여덟이었다. 글자는 파리 머리만 하였지만 역시 안경도 쓰지 않았다 하니 매우 놀라운 일이다.” (김정희 2014, 259-260) 추사는 북경에 머무는 동안 여러 차례 담계 집 대문을 두드렸고 담계는 소장한 책과 자료들을 보여주면서 추사를 지도했습니다. 추사는 옹방강의 소장품 중 <송탁화도사고승옹선사사리탐명>, <동파진적천제오운첩>, <송참주동파선생시잔본>, <소동파상>, <당각본공자묘당비>, <육방옹서시경각석탁본> 등을 감상하였습니다(후지츠카 치카시 2009, 155-176).

석학인 옹방강은 추사에게 매우 친절하고 자상하였습니다. 추사는 <한중태수축군개포사도비 탁본>을 본 경험에 대해서 “자획이 가느다랑기가 금사와 같고 돌이 이지러지고 이끼가 끼어서 더욱 흐릿하게 되어, 비록 눈밝은 사람일지라도 갑자기 글줄을 찾아내고 자획을 판단하기 어려웠는데, 다행히 소재께서 하나하나 지도하여 가르쳐 주셔서 비로소 그 대체를 약간 알게 되었네.”라고 말합니다(김정희 2014, 63-65). 추사는 석학인 옹방강이 친히 자세하게 지도해주는 것에 감격하였고 조선에서 공부하면서는 알기 어려웠던 지식을 청에서 배우고 익히면서 지적 자극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석묵서루에서 옹방강은 서예를 직접 보여주기도 하고, 그림에 대해서도 일가견이 있어 추사와 함께 예술을 논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조자고(조맹견)가 난초를 칩에는 붓마다 왼쪽으로 향하였으니 소재(옹방강) 노인이 여러 번 그것을 칭찬하였다.” (김정희 2014, 372) 그리고 추사는 “담계노인의 정서(해서)는 술경(구양순)에게서 그 원숙한 곳을 얻었고 하남(저수량)에게서 그 예서의 필의를 얻었는데, 8만 권의 금석 기운이 팔뚝 아래로 쏟아져 내려서 뚜렷하게 서가의 용상(불가에서 大德을 일컫는 말)이 되었다.” (김정희 2014, 317)라는 평을 남기며 옹방강의 학문적 경지와 서예에 담긴 기세에 대해 극찬합니다.

추사의 학문적 호기심과 경의, 한묵에 대한 조예는 담계가 “바다 동쪽 땅에 이 같은 영재가 있었던가” 하고 놀라게 했으며 옹방강은 ‘경술문장 해동제일(經術文章海東第一)’이라는 글을 써주었습니다(후지츠카 치카시 2009, 154). 이러한 평가는 추사의 실력을 동등하게 인정하고 놀라워했다고만 보기 어려운데, 중국인 아닌 사람에 대한 기준에 비추어 뛰어나다고 하는 것이며 중국 밖에 이 정도의 학식을 갖춘 사람이 있을 것을 기대하지 않았다는 뜻도 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옹방강의 말에는 젊은 학자의 열정과 학식에 경탄하는 마음도 있었겠지만 먼곳에서 온 손님에 대한 격려와 예의, 중화적 태도도 함께 담겨 있는 듯합니다.

청 학자들 중에서도 추사가 찾아갔던 담계는 송의 성리학을 배격하는 흐름에 맞섰던 인물이었습니다. 옹방강은 추사에게

자신의 신념에 기초해 경학의 본령을 설명해주고 경전 연구방법을 가르치며 지도하고자 애썼습니다. 추사는 “담계의 경학은 주자를 위배하지 않은 것으로 바른 길을 삼았다”라고 하고, “한학과 송학과 함께 헤아리되 높고 깊어 예봉을 드러내지 않아야 한다.”라는 시를 읊어(후지츠키 치카시 2009, 174) 옹방강의 정신과 학풍을 이어받고자 하는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추사는 북경에 있는 동안 담계를 자주 방문하며 그의 학문과 덕에 매료되었습니다. 연행 당시 옹방강으로부터 구양순체로 쓰인 <송탁화도사비>의 모각본을 선물받았고, 귀국 후 구양순체의 탁월함을 옹호하는 옹방강의 견해에 적극 동조합니다(후지츠키 치카시 2009, 158-159). 조선에 돌아간 이후에도 옹방강이 세상을 떠난 1818년까지 지속적으로 서신으로 교류하였습니다. 옹방강이 소동파를 좋아하여 서재에 ‘소동파를 보배롭게 받드는 서재’인 ‘보소재’라는 이름을 붙였듯이, 추사는 귀국 후 자신의 서재를 ‘담계 옹방강을 보배롭게 받드는 서재’인 ‘보담재’라고 하여(유홍준 2006, 154) 옹방강에 대한 존경심을 표현하고 자신의 학문이 지향하는 바를 드러냈습니다. 추사는 조선에 돌아와서도 옹방강을 비롯한 중국 인사들과 서신 교류를 계속하며 중국의 선진 문물을 체화하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느꼈습니다(김준석 2016, 321).

운대 완원과 승설차의 향기

추사가 북경에서 만나게 된 또 한 명의 스승의 이름은 완원(阮元, 1764~1849)으로, 운대라는 호를 썼습니다. 강소성 의정 사람인 완원은 “청조 문화를 완성하고 선양함에 절대적 공로자이자 당시 제일인자”라는 평을 받고 있었던 인물로 《십삼경주소》를 편찬하였고 문집 《북경실집》을 냈으며 《황청경해》라는 청나라 경학에 대한 주해서를 편찬하였습니다(유홍준 2006, 58-59). 추사는 완원을 만나고 감탄하여 그의 이름자를 딴 완당(阮堂)이라는 이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추사의 연행 이전 유득공과 박제가 두 사람이 북경에 갔을 때 운대는 이들을 맞이해 깊은 학연을 맺었고, 20년 뒤 박제가의 가르침을 받은 추사가 운대의 집에 방문하여 다시 인연을 이어나가게 되었습니다(후지츠카 치카시 2009, 182). 원래 완원은 강남 향주에 있었는데, 때마침 일이 있어 1809년 9월 23일 북경에 들어와 후실인 공씨 집안의 연성공 저택에 잠시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 짧은 기간 동안 추사와 완원의 만남이 이루어진 것은 절묘한 운명이었고 추사에게 큰 행운이었습니다.

추사는 1810년 1월 이곳을 찾았고 당시 47세인 운대는

추사를 환대하며 자신의 서재인 태화쌍비지관으로 초청하고 승설차를 달여 대접했습니다. 고려시대에 한반도에 들어온 승설차는 조선시대에 그 존재가 잊혀진 진귀한 차인데, 다도에 해박했던 추사는 감격해하며 승설차를 맛보고 기뻐했습니다(유홍준 2006). 추사는 승설이라는 호를 지어 이를 기념했고 귀국 후 40년이 지나서도 벗인 권이재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승설차의 맛에 대한 기억을 떠올립니다. “다품이 과연 승설차의 남은 향기라 하겠습니까. 일찍이 쌍비관에서 이 같은 차를 보았는데, 우리나라로 와서는 40년 동안 다시는 보지 못했습니다.” (후지츠키 치카시 2009, 182) 중국에서 추사는 가는 곳마다 차 대접을 받으며 깊은 인상을 받았던 듯하며 조선에 돌아와서도 좋은 차를 마시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완원은 추사를 초청하여 자신이 소장한 진의 <태산각석잔전>을 비롯하여 <송탁한서악화산묘비> 사명본, <당정관조상동비>, <칠경맹자고문보유>, 그 외 사고전서에 수록되지 않은 진귀한 서적 등을 보여주며 학리를 전수하였습니다(유홍준 2006; 후지츠키 치카시 2009). 추사는 완원의 금석학 방법론에 심취하여 완원의 이론을 많이 필사하여 가지고 왔습니다. 북경에 체류한 기간이 길지는 않았지만, 학문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귀중한 자료들을 보고 감탄하며 완원의 서재에서 학문을 배운 경험은 귀국 후 추사의 학문 연구에도

귀중한 바탕이 되었습니다.

완원의 소장자료 중 야마이 가나에와 부쓰칸의 <칠경맹자고문보유>는 건륭 연간에 일본에서 청나라에 전해져 사고전서에 수록되고 청나라 경학 연구에 큰 공헌을 했습니다(후지츠카 치카시 2009). 추사는 북경에서 이 명저를 직접 눈으로 볼 수 있어 크게 기뻐했을 것입니다. 추사는 조선학자로서 <칠경맹자고문보유>를 처음 보는 것이었고 그 가치를 알아보았습니다. 추사는 훗날 “칠경과 맹자는 문장 고증이 실처럼 상세해서 지난날 완부자(완원)을 뵈 때 그 정밀함에 탄복해마지 않으셨네. 수월루 간행본이 번각되어 세상에 유포되고 있네.”(후지츠카 치카시 2009, 187)라는 시를 읊어 이 기억을 상기하며 자신 또한 깊은 인상을 받았음을 드러냅니다.

완원은 성인의 길을 궁궐에 비유하고 문자나 훈고를 그곳으로 통하는 길에 비유하여 길을 잘못 들어서면 안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완원은 추사에게 학문을 연구하는 방침을 차근차근 설명해주고 실사구시를 근본으로 삼아야 한다는 뜻을 지도했고, 추사는 운대의 지론을 경청했습니다(후지츠카 치카시 2009, 198-199). 추사는 <실사구시설>을 지어 “학문하는 길은 반드시 한나라 학풍과 송나라 학풍의 경계를 나누지 않아야 하고 정현과 왕필과 정호, 정이 및 주희의 단점과 장점을 비교할 필요도 없으며, 주희와

육구연, 설선, 왕수인의 문호를 다룰 필요도 없다. 다만 심기를 고르고 고요하게 하여 넓게 배우고 힘써 실행하면서 오로지 ‘실제 있는 일에서 올바른 이치를 찾는다(실사구시)’는 이 한마디 말을 기본으로 실행하면 좋겠다.” (김정희 2014, 478-479)라고 하였는데 완원의 사상에 영향을 받았다는 점을 볼 수 있습니다. 추사가 금석학에 있어 완원과 옹방강의 이론과 큰 유사성을 보이기에 금석고증학에 있어 이들을 뛰어넘는 독자적인 학문을 일구지는 못했다는 평(김준석 2016)도 제기됩니다.

완원도 옹방강과 마찬가지로 한송절충의 입장을 취하는 인물에 속하였기에 추사가 청의 학문 중에서도 조선과 맞닿은 줄기를 선택하여 만나고 배움을 얻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완원의 태화쌍비지관에 걸린 희귀한 비석 탁본을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보면서 차를 마시고 학문을 논하는 시간은 추사의 기억 속에 깊이 새겨지고 은은한 차향과 함께 기억되었을 것입니다. 30대에 들어서면 김정희의 호는 추사보다도 완원으로부터 받은 이름인 완당으로 더 많이 불리게 되었습니다(유홍준 2006). 이러한 이름 변화는 청의 학술문화와의 만남을 통해 새로운 자신을 찾은 김정희의 자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북경 학예인들과 나눈 우정

추사는 사제지의를 맺은 옹방강과 완원 같은 스승 이외에도 이정원, 서송, 조강, 주학년 등 많은 친구와 선배를 사귀었고, 이들은 대가의 뒤를 이은 차세대의 뛰어난 학예인들이었습니다(유홍준 2006, 61).

그 중 조강(曹江)은 추사가 북경에서 제일 먼저 만난 학예인으로, 박제가와 유득공이 1801년 3차 연행 때 만나 교류한 사람입니다. 조강은 상해 명문가 사람이었고 시와 글씨로 명성을 얻어 1801년 박제가와 유득공의 연행 시 교류했습니다. 그는 추사가 북경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추사의 ‘세계로 넓게 지기를 찾을 의지’를 높이 사는 글을 쓰기도 했습니다. 추사는 조강을 통해 서송을 만났고, 옹방강과 주야운 등과 자주 만나고 있었던 서송을 통해 북경의 여러 학예인을 소개받을 수 있었으며 옹방강과 완원을 만나게 되었습니다(유홍준 2006; 후지즈카 치카시 2009).

또 한 명의 친구인 야운 주학년(朱鶴年; 1760~1834)은 뛰어난 화가로 추사에게 자신의 그림을 많이 선물하였고 귀국 후에도 그림을 보내주었습니다. 추사는 분방가의 의도시옥에 있는 주학년에게 자주 찾아갔습니다. 그는 고향인 강남성에서 북경으로

올라와 그림으로 명성을 떨쳤으며, 담계 문하에 있었고 글씨와 그림이 모두 뛰어났습니다. 추사는 주학년의 그림에 대하여 “주야운의 그림에 가슴에 가득 찬 십년 산림의 삶. 야운의 오묘한 필치는 천연에서 이루어졌네.” (후지츠카 치카시 2009, 206)라는 감상을 적어주기도 했습니다. 온화하고 선행을 많이 했다는 주학년은 완원을 비롯한 여러 인사들과 두루 오래 친분을 유지했다(후지츠카 치카시 2009, 200)고 하니 추사에게도 자신의 지인을 많이 소개해주었을 것입니다. 주학년은 추사와 헤어진 뒤 추사의 생일마다 술을 따라 뿌리며 축하해주겠다고 약속하여(유홍준 2006, 62) 짧은 시간이지만 마음을 터놓을 수 있었고 국경을 넘어서 계속 교류하고자 했던 두 사람의 우정을 보여줍니다. 주학년이 세상을 떠난 뒤 어느 해 추사는 생일을 맞아 친우의 기억을 떠올리며 시를 한 수 지었습니다. “하늘 끝에서 그림 앞에 두고 눈물짓노니, 유월 초사할 슬픔이 더욱 북받치네. 의도시옥에서의 즐기던 때가 생각나, 허공 멀리 술 한 잔 뿌려 생일을 자축하네.” (후지츠카 치카시 2009, 208-209)

주학년의 <추사전별도>는 추사가 북경을 떠나게 될 즈음 중국에서 사귀 친구들이 열어준 잔치의 장면을 담았습니다. 북경의 학예인들은 1810년 2월 1일 북경 법원사에서 송별연을 베풀었습니다. 노령의 옹방강 대신 그의 아들 옹수곤이 참석했고, 완원, 이정원, 조강, 주학년, 이임송 등이 모였습니다. 주학년은 이

송별연 장면을 즉석에서 스케치하고 참석자 이름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림 속 노승과 괴석이 운치 있는 별채에서 사람들은 이별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 탁상 가운데에서 추사는 자제군관으로서 무관 복식을 하고 앞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잔치에서 지어진 전별시는 책으로 엮여 추사에게 기증되었습니다(유홍준 2006, 63).



▲ 유리창 찻집의 찻잔.

북경에 머무는 기간은 짧았으나 추사는 많은 석학과 명사들을 찾아다니며 경전의 뜻을 묻고 깊숙이 수장된 서적들을 즐기면서 오랜 소망을 성취할 수 있었습니다. 추사는 타국의 젊은 학자를 반겨주는 따뜻한 대우에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추사는 이별시를

옴어 북경에서 만난 학자들을 하나하나 거론하면서 감사를 표합니다. 이 시는 “내가 태어난 곳은 미개한 나라 진실로 촌스러우니 중국의 선비들과 사귄데 부끄러움이 있네” (김정희 1986)라는 말로 시작되는데, 조선을 직설적으로 낮추는 추사의 말을 어떻게 해석할지 고민됩니다. 예의상의 표현일 뿐이 아니라 추사 스스로 조선의 부족함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학문적 시야를 넓힐 수 있었던 북경에서의 체류는 추사가 당시 조선의 학술·문화적 한계에 대해서 더욱 실감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추사가 북경에서 만난 인연들에 대해 요약하는 이 시는 청과 조선의 사이에 있는 압록강 물을 술로 빚고 말려보겠다는 통 큰 수사법을 통해 이별의 아쉬움과 함께 두 나라의 경계를 허물고 교류하고 싶어하는 소망을 노래합니다. 북경에서 사귄 사람들과의 우정과 더불어, 청의 문화·학술공동체에 매력을 느끼고 그 일원이 되고 싶어하는 추사의 속마음도 엿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사는 큰 감동과 학예에 대한 의욕을 안고 북경을 떠나 1810년 3월 조선에 돌아왔습니다.

추사의 길을 돌아보며

추사는 담계와 운대를 평생의 스승으로 삼아 조선에 돌아왔습니다. 이후 추사의 삶은 평탄하지 않아 긴 유배생활을 하게 되었으나 북경에서의 만남들을 계속 추억하고 교류를 이어가려 하였습니다. 추사는 자신의 삶의 정신을 옹방강과 완원의 말을 빌려 요약하며(김정희 2014, 407) 경학에 대한 깊은 이해에 뿌리를 두고 금석고증학을 연구하며, 기존 조선의 주류와는 차별화되는 국제적인 수준의 학문과 예술을 지향하는 마음을 드러냅니다. 북경의 공기를 한껏 들이마시고 조선에 돌아온 추사는 자신의 학문과 예술을 숙성시키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청조 문화에 대한 동경을 품고 북경을 방문해 대가들의 가르침을 받고 조선의 한계에 대해 깨닫는 바가 많았던 젊은 추사는 청의 문화에 흠뻑 젖어든 모습에 가까웠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변화한 유리창에서 수많은 도서들을 접하고, 글에서 언급되지만 했던 귀한 서적들을 눈앞에서 보고, 조선에서 공부할 때는 알 수 없었던 것을 청의 석학들에게 배우고, 관심사를 공유하는 친우들과 이야기하는 시간은 두 달 남짓한 기간이었으나 그의 일생을 바꾸는 진한 영향을 남겼습니다. 직접 가서 보고 느낀 북경은 추사의 기억 속에 감동과 흥분으로 오래도록 남아 계속해서 상기됩니다. 추사의 몸은 중국을 떠나왔으나 마음은 북경에서 살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사는 조선에 돌아와 북경에서의 경험을 계속 언급하며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지적해서 미움을 사기도 했습니다. 추사는 조선의 학술·문화 특히 서예에 대해 비판적이었으며 명필로 꼽히던 율교 이광사와 석봉 한호의 서체마저 공들인 것에 비해 “극히 속된 곳”이 있다고 신랄하게 비판합니다(김준석 2016, 328-329). 추사는 조선의 문화적인 표준이 시대에 뒤떨어져 있으며, 중국의 선진문화를 접하고 실제로 가서 경험해야 비로소 체득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추사가 청에서 귀국한 뒤 추구한 고아한 문인취미는 그의 생전과 사후 조선 문화의 주류로 자리잡게 됩니다. 동주는 추사로부터 시작된 ‘완당바람’으로 인한 문인화의 유행이 한국 화단에서 유행하던 진경산수와 속화의 터전을 부수게 되었다는 점을 안타까워합니다(이동주 1996a, 350-353). 추사의 청 편향이 조선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며 자생적 문화가 성장할 기회가 상실되었다는 것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하지만 추사는 유배기간을 거쳐 독특한 추사체를 만들어내게 되었고 추사의 연행은 그 바탕이 되는 재료와 정신을 흡수하는 밀도 높은 시간이었습니다. 조선 학문과 예술의 거목인 추사가 조선에 대해 냉담한 평가를 내리는 것이 아쉽기도 하지만, 청 문화에 흠뻑 젖어들어 궁구하였기에 그 핵심을 자기 것으로 소화하여 높은 경지에 도달하고 역설적으로 독자적 세계를 열 수 있었던 측면도

있었습니다.

사랑방 사람들과 함께 고즈넉한 다원에서 차를 마시고, 추사가 걸었을 유리창 거리를 따라 걸으며 오늘의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고민해보았습니다. 추사의 시대에 청에서 받아들인 학문과 예술을 조선이 자기화하고 개성적으로 발전시켜 새로운 성과를 거두고, 조선의 자생적 문화가 청의 문화까지 품으면서 세련되고 보편적인 미감을 실현할 수 있었을 가능성에 대해 상상해 보았습니다. 추사가 걸었던 길은 우리나라의 학문과 문화가 세계적 보편성을 획득하고 표준을 만들어내는 것에 기여할 수 있을지 질문해보게 합니다. 2017년 여름, 추사의 여행보다 짧은 답사 일정이지만 그에 못지않은 기억과 여운을 가슴에 품고 북경에서 돌아왔습니다.

참고문헌

김정희. 1986. 《완당집》. 신호열·김정기 등 역. 한국고전번역원 고전번역서.

http://www.krpia.co.kr/knowledge/itkc/detail?artClass=MK&artId=kc_mk_h011#none (검색일: 2017.06.17.)

_____. 2014. 《추사집》. 최완수 역. 서울: 현암사.

김준석. 2016. “추사 김정희의 연행과 학술 교류를 통해서 본
19세기 초 한중 학술 문화 공동체.” 하영선·이현미 편저.
《사행의 국제정치: 16~19세기 조천·연행록 분석》. 서울:
아연출판부.

유홍준. 2006. 《김정희: 알기 쉽게 간추린 완당평전》. 서울: 학고재.

이동주. 1996a. 《우리나라의 옛 그림》. 서울: 학고재.

_____. 1996b. 《우리 옛 그림의 아름다움》. 서울: 시공사.

이홍식. 2013. “북경 유리창과 조선의 문화 변화.” 정민 외. 《북경
유리창: 18, 19세기 동아시아의 문화거점》. 서울: 민속원.

정민. 2013. “연행 기록을 통해본 18~19세기 북경 유리창 서점가.”
정민 외. 《북경 유리창: 18, 19세기 동아시아의 문화거점》.
서울: 민속원.

후지츠카 치카시. 2009. 《추사 김정희 연구: 청조문화 동전의 연구
한글완역본》. 윤철규 외 역. 과천: 과천문화원.

낭만적 현실주의자 모택동

_중국인민항일전쟁기념관

오인환

서울대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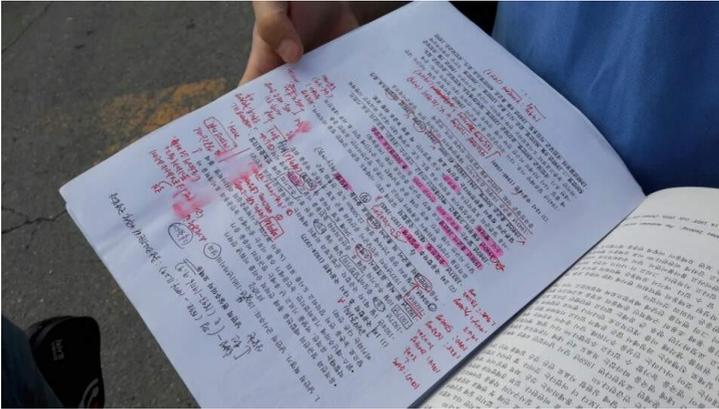
들어가며: 평더화이와 마오쩌둥

인천상륙작전과 북진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맥아더는 중공군이 한국전쟁에 개입하지 않을 것이며, 개입하더라도 충분히 미군은 중공군을 격멸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1950년 10월 15일 웨이크 회담에서 맥아더는 같은 생각을 트루먼 대통령에게 전달했지만, 7월부터 유사시를 위해 동북변방군(東北邊方軍)으로 편성되어있었던 중공군은 10월 19일 압록강을 넘어 한반도에 진출했고, 1,2차 공세를 통해 예상외의 성과를 거두면서 미국과

국제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전쟁에서 이 같은 전공을 올린 중국인민지원군 (Chinese People's Volunteer Army)의 총사령관은 평덕화이(彭德懷)였습니다. 흔히 알려진 것처럼 중공군은 단순히 우세한 병력만으로 유엔군을 몰아부친 것이 아니라 ‘분리와 소멸’이라는 전략, 전술개념을 통해 중공군의 약점을 최대한 보완하고, 강점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전투를 수행하였고 바로 그 선두에 평덕화이가 서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중공군 1,2차 공세가 예상외의 큰 성공을 거둔 이후, 1951년 공세의 시기와 목표를 놓고 평덕화이와 마오쩌둥(毛澤東)은 지속적인 갈등을 빚게 됩니다. 총사령관으로서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평덕화이는 2차 공세까지 쉬지 않았기 때문에 병력들이 매우 지쳐있으며 병참선은 신장된데다가 미군의 공중폭격으로 인해 보급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재정비를 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그러나 마오쩌둥은 빠른 시일내에 최대한의 진격을 고수했고, 할수만 있다면 유엔군을 한반도에서 몰아내야하며 38선까지는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평덕화이는 우선 상위 정치지도자의 지침을 따라 3, 4차 공세를 수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4차 공세가 종료된 후, 평덕화이가 1951년 2월말-3월초에 북경을 직접 방문하여 마오쩌둥에게 의견을 제시한 이후에서야, 마오쩌둥은 입장을 양보하지만 여전히 가능하다면 속승(速勝)을 달성해야 한다는

여운이 담긴 말을 남깁니다. (팽덕회 1981)



▲ 유익한 해설을 위해 꼼꼼히 준비된 발제문.

1951년에 촉발되었던 마오쩌둥과 펑더화이의 의견충돌은 8년이 지난 1959년 여산회의(廬山會議, Lushan Meeting)에서 다시 나타납니다. 1956년 9월 15일 중국 공산당은 8기 전국대표회의를 통해 1차 5개년 경제계획이 예정보다 빠르게 진행되었기 때문에 향후에는 약진식으로 발전하자는 방침을 세웁니다. 1958년에는 사회주의 건설 총노선을 제정하고, 인민공사를 통해 “전 인민을 발동하여 40조 강요를 토론하고 농업생산의 새로운 고조를 일으키자”는 주장에 따라 대약진운동을 전개하였지만, 무리한

생산량 설정과 낮은 생산력으로 인해 국민경제는 더욱 어려워져 농민들에게는 식량부족현상까지 나타났습니다. 중국공산당 중앙은 1958년 11월 21일에 무창회의를 소집하였고, 이후 1959년 2월 정주회의, 같은 해 3월 말 상해회의를 소집해 대약진과 인민공사에 대한 규정을 재정비하였습니다. 무리한 대약진운동의 오류와 이로인해 증가된 생산량을 허위로 보고하는 과장풍(誇張風)을 인식하고 있었던 평더화이는 1959년 7월 2일부터 열린 여산회의에서 이에 대한 반대의견을 제시하기 위해 고심끝에 7월 14일 마오쩌둥에게 자신의 생각을 정리한 편지를 보냅니다. 마오쩌둥이 편지를 개인적으로 읽고 나름의 시정판단을 내리기를 원했던 평더화이의 의도와는 다르게, 마오쩌둥은 이 편지를 7월 16일 당내에 인쇄하여 다른 당원들도 볼 수 있도록 배부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오쩌둥은 평더화이가 우경편향을 가지고 있으며, 그의 편지는 반당적강령이라고 비판하였고, 이후 본래 대약진운동에서 나타난 좌편향적인 문제를 교정하고자 한 여산회의의 목적은 평더화이에 대한 비판으로 변질되었습니다. 평더화이에 대한 비판은 ‘반우경투쟁’으로 확대되었으며 우파로 지목받을 것을 우려한 중국공산당 지도부의 일원들은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발표할 수 없었습니다. 여산회의는 최고 지도자들 간의 자유로운 의견발표와 논쟁을 통해 문제를 조정하는 중국공산당의 관례를 파괴한 회의가 되었으며, (강명화 2005) 이

여산회의를 계기로 평더화이는 군사위원회 부주석 겸 국방부장직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 항일전쟁기념관 앞에서의 단체사진.

그렇다면 마오쩌둥은 왜 평더화이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1951년 평더화이에게 3,4차공세를 통한 무리한 진격을 요구하였을까요? 또 그는 1959년 여산회의에서 왜 평더화이의 편지를 비난하고 평더화이의 의견에 동조했던 이들을 우경기회주의자로 몰고가면서 문화대혁명시기까지 시대에 역행하는 모습을 보였을까요?

낭만적 현실주의의 성공: 항일전쟁과 국공내전

1927년 정강산 유격투쟁을 통해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시작한 마오쩌둥은 (육군사관학교 군사사학과 2006, 257) 이후 두 차례에 걸친 국공내전과 항일전쟁, 그리고 앞에서 살펴본 중공군 1,2차 공세를 통해 낭만적 현실주의자로서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여기서 낭만적이라 함은 객관적인 힘의 우열을 놓고보았을 때, 상대에 비해 큰 열세에 처해있어 일반적으로는 포기할만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모험적인 선택을 하는 경향을 의미합니다. 또 여기서 현실주의라고 함은 중소관계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1950년 이후에는 중소관계의 국제정치적 영향력을 생각할 수 있겠고, 그 이전의 시기에는 물리적 힘의 열세 속에서는 전면적인 대결을 회피하면서 지구전을 택했던 마오쩌둥의 전략적 투쟁방식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마오쩌둥의 생애를 크게 둘로 나누면, 그의 낭만적 현실주의가 성공한 시기와 낭만적 현실주의가 과잉되어 폐해를 낳은 시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랑방 8기 답사에서 마지막날 방문하게 된 항일전쟁기념관도 마오쩌둥의 낭만적 현실주의가 성공을 가져온 시기의 주요한 국면을 확인할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1927년 말에 마오쩌둥이 처음 유격전을

수행할 때의 병력은 수백명에 불과했지만, 당시 공산당과 홍군을 토벌하려는 국민당의 토벌을 3차례 격파한 이후 홍군의 병력은 30만명으로 불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1934년 10월부터 1935년까지 국민당의 토벌을 회피하기 위한 12,500km의 대장정에서 고된 전투와 행군을 수행 하면서 30만명이었던 홍군은 3만명까지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육군사관학교 군사사학과 2006, 259).

이어 1937년 노구교(蘆溝橋)에서의 일본군 병사의 실종에 대한 수색을 명분삼아 일본군이 완평성(宛平城)을 포위하면서 발발한 중일전쟁은 마오쩌둥에게 있어 한편으로는 기회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더 큰 모험의 시작이었습니다. 객관적인 전력상으로 50만 이상의 병력을 보유하고 있었던 일본군에 비해 중국군은 열세에 처해있었고 특히 마오쩌둥의 홍군은 1938년경 4만 2천여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일본은 최초로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 상당수의 사단을 만주에 남겨두었기 때문에 초기 침략군의 규모는 50만명으로 시작했지만, 그 이후의 규모는 100만명까지 이르렀기 때문입니다(육군사관학교 군사사학과 2006, 276).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오쩌둥은 제2차 국공합작에 이어, 유격전을 중심으로한 항일전쟁을 전개하였고 습격과 회피를 반복하면서 성장한 홍군은 계속 그 수를 늘려갔습니다. 4만 2천명에 불과하던 병력은 18만명으로, 1940년에는 총 50만명에

이르게 됩니다. 결국 1941년 일본이 진주만 기습을 감행한 이후, 일본군과 미군의 태평양 전역의 비중이 증가하게 되면서 전세는 역전되기 시작했습니다.



▲ 노구교(蘆溝橋)입구 앞에서 진행된 발제

1944년에 마오쩌둥의 홍군은 75만명을 보유하는데 이르렀고, 1945년에는 130만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일본군이 태평양 전역과 함께 중국에서의 전역을 수행해야하는 일종의 양면전쟁을 수행하게 되면서 중국을 점령했던 일본군은 약화되기 시작하였고, 결국 1945년 8월 9일부터 중국군은 전략적 반격을 감행하면서

일본군의 패망으로 몰아갔던 것입니다(육군사관학교 군사사학과 2006, 278).

우리 사랑방 8기는 바로 이 중일전쟁의 시발점이 된 7.7사변으로 알려져있는 노구교 앞에서 함께 낭만적 현실주의자 마오쩌둥에 대한 내용을 발표를 통해 공유하였습니다. 또한 항일전쟁기념관을 둘러보면서 일본군의 만행과 중국 공산당 군사지도부가 열세속에서도 궁극적인 승리를 쟁취해 낸 업적을 대조적으로 전시해놓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과 어른들을 불문하고 이 기념관을 찾아와 방문하는 수많은 현지인들의 인파를 보면서 중국 공산당과 마오쩌둥의 정치적 정당성을 학습시키는 매우 중요한 현대의 거점이 되어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마오쩌둥의 낭만적 현실주의의 성공은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중일전쟁보다 어찌보면 더 큰 군사적 열세를 극복해야 하는 국공내전이 마오쩌둥에게는 숙제로 남아있었습니다. 1945년에 일본이 패망한 이후 1946년 국민당과의 정치협상이 결렬되었을 당시, 국민당군은 430만명에 달하고 있었고 공산당군은 이에 비해 120만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약 4:1의 병력의 열세에 더해 미국의 지원을 받았던 국민당과 비교하여 무기와 장비면에서도 마오쩌둥의 공산당은 열세에 처해 있었습니다(육군사관학교 군사사학과 2006, 254).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오쩌둥은 농촌에서 시작하여 도시를 포위하는 전략을 사용하였고, 공산당군은 투항하는 국민당군을 흡수하기 시작하였습니다. 1948년에 6월에 이르면 국민당군은 365만명으로 감소하였고, 홍군은 같은 시기에 280만명으로 증가합니다. 결국 1949년에 6월에 이르면 홍군은 400만명으로 증가하고, 국민당군은 149만명으로 줄어들면서 형세는 역전되었고 1949년 4월 20일 공산당은 최종공세를 감행합니다. 같은 해 장개석이 대만으로 망명하면서, 1949년10월 1일 마오쩌둥의 중화인민공화국이 탄생하였던 것입니다(육군사관학교 군사사학과 2006, 279).

흥미로운 점은 평더화이가 1928년 2월 공산당에 입당한 이후, 1934-1935년의 대장정, 중일전쟁 중에 1940년 8월부터 3개월간 중국 공산당이 실시한 백단대전(百團大戰), 1946년 이후에 재개된 국공내전, 그리고 1950년 한국전쟁 참전과 중공군 1,2차 공세에 이르기까지 같은 호남성(湖南省) 상담현(湘潭縣) 출신의 형이자 지도자였던 마오쩌둥을 보좌하며 지지한 군사지도자라는 점입니다. 항일전쟁기념관을 돌아보며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 중국 공산당의 군 편제에서 총사령관으로 주더(朱德)가 있었고, 부사령관으로 바로 평더화이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1949년에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되기까지 지난한 항일전쟁과 국공내전 속에서 마오쩌둥과 함께한 군사지도자 서열 1,2위는 주더와

평터화이였습니다. 1950년에 약속되어있었던 소련의 공군지원이 불투명해진 상황에서 한국전쟁에 참전을 두고 벌어진 중국 공산당 내부의 토론과정에서도 평터화이는 당내 참전을 설득하고 추진한 마오쩌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편에 속했습니다. 결국 한국전쟁에 중국인민지원군의 총사령관으로 평터화이가 파견되면서 향후 그는 중국 공산당내의 군사지도자 서열 1위의 지위를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1950년 중공군 1,2차 공세가 예상외의 큰 성공을 거둔 것도 마오쩌둥이 애초에 전략적 기지를 확보한다는 수세적 전략적 지침을 가능한 유엔군을 남쪽으로 몰아낸다는 공세적 지침으로 변경한 것을 평터화이가 별다른 이견없이 지지한 것에 기인합니다. 하지만, 마오쩌둥의 낭만적 현실주의의 성공은 지금까지의 결과적 성공에 대한 과신의 축적으로 이어집니다. 1951년 중공군 공세의 시기와 목표에 대해서부터 평터화이와 마오쩌둥은 의견을 달리 하기 시작하였고, 마오쩌둥은 자신의 지침이 생각했던 만큼의 성공을 거두지 못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나서야 평터화이가 예상했던 한국전쟁에서의 지구전을 승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1959년에도 지속된 마오쩌둥의 낭만적 현실주의의 과잉은 중국의 미래를 퇴행시키는 결과를 낳습니다.

낭만적 현실주의의 과잉: 1951년과 1959년

핑더화이는 1950년 12월 향후 공세를 준비하면서 한국전쟁의 전황 및 향후 전망에 대한 마오쩌둥의 의견에 대해 각각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볼 때, 핑더화이의 예측은 매우 정확했습니다. 한국전쟁을 둘러싼 국제정세를 볼 때, 마오쩌둥이 유엔군의 철수나 38선 점령이후의 휴전협상의 개시 등에 대해 낙관적인 전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에 비해, 핑더화이는 그렇게 쉽게 유엔군이 물러서지 않을 것이며 조선에서 미군이 완전히 철수하는 것도 쉽게 일어날 수 없는 일임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핑더화이는 실제 전황에 있어서 1,2차 공세는 중공군이 초반기습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었으며 남쪽에 비해 북쪽의 전선이 넓었기 때문에 운동전에 따른 공격효과를 노릴 수 있었지만, 남쪽으로 병력이 전개될 시에는 유엔군이 더 유리한 좁은 정면이 펼쳐지며 열악한 보급의 상황을 고려하면 장기전에 대비하는 것이 낫다고 보았습니다. 별다른 일이 없다면 패전하지는 않겠지만, 큰 승리를 얻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핑더화이의 예측은 당시 마무리되고 있던 2차 공세를 넘어 3,4차 공세의 결과에 대한 예측으로서도 맞아떨어졌습니다(행정자치부 정부기록보존소 2002, 103).

마오쩌둥은 12월 21일에 보낸 전보를 통해 평더화이의 12월 19일 전문에 회신하면서 표면적으로는 평더화이의 고충과 이견을 들어주는 척하면서도 평더화이가 요구한 충분한 휴식 이후의 결정적인 공세가 아니라 단기적인 휴식 이후의 지속적인 공세를 요구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정공세라 불리는 1월의 3차 공세와 유엔군의 반격이후에 시행된 2월의 4차공세로 나타난 것입니다. (행정자치부 정부기록보존소 2002, 105) 1950년 12월초부터 1951년 2월까지 평더화이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38선 돌파와 이른 3,4차 공세를 지시한 마오쩌둥의 결정 또한 같은 중소관계의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선 1950년 12월 4일 그로미코(Andrei Gromyko)는 주소련 중국대사와의 회담에서 중국은 휴전회담이 열리기 전 우세한 입장을 확보하기 위해 38선을 횡단함으로써 성공적인 공세작전을 계속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이어 12월 7일 스탈린과 마오쩌둥도 전투를 계속할 것과 유엔에 까다로운 휴전조건을 제시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한국전쟁의 국제정치적 해결과 당시 전황에 대한 낙관을 가지고 있었던 스탈린과 마오쩌둥에 의해, 1951년의 공세 결정이 이뤄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데이빗 쉰이 2011, 243).

하지만 똑같이 38선을 돌파한다 하더라도 마오쩌둥은

평덕화이의 의견에 따라 좀 더 충분한 휴식과 부대재편성을 한 이후에 공세를 취할 수도 있었고, 평덕화이와 타협하여 평덕화이가 건의한 3월이 아니라 2월에 3차 공세를 실시할 수도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공세의 범위와 시기는 사실 스탈린과 합의된 부분 안에서 마오쩌둥의 재량에 달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마오쩌둥은 무리하게 여겨질만큼 38선돌파를 위한 3차 공세를 서둘러 12월 말에 공세를 재개하였고, 그리고 2월에는 다시 4차 공세를 하는 선택을 보여주었습니다.

바로 여기서 당시 중소관계의 내면적인 갈등, 즉 스탈린은 마오쩌둥의 충성심을 의심하였으며 (선즈화2010, 33) 마오쩌둥은 그의 의심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동시에 소련의 미온적인 군사적 지원에 대해 불만을 가진 상황을 기억하면 마오쩌둥이 1951년에 내린 결정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평덕화이가 제시한 객관적인 군사적 상황과는 배치되는 낭만적 판단이었지만, 중소관계의 측면에서 보면 나름 현실주의적인 결정이었던 것입니다. 이 같은 낭만적 현실주의의 과잉과 그 폐해는 1959년에 더 크게 나타납니다.

마오쩌둥은 사실 1958년 대약진운동의 실패로 인해 1959년 4월 주석에서 사임한 상태였습니다. 이로 인해 처형당한 사람의 수까지 합쳐 약 수천만명 이상의 아사자(餓死者)가 발생했고,

평터화이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기존 노선을 고수한 결과, 1960-1963년에는 식량부족사태까지 발생하는 실패를 겪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마오쩌둥은 현실에 근거한 합리적 비판을 했던 평터화이의 의견을 듣지 않고 우경기회주의자로 몰고갔을까요?

강명화를 비롯한 기존 연구는 인민해방군이라는 큰 지지기반을 가진 평터화이를 견제하기 위한 권력투쟁의 결과였다는 점과, 여산회의를 통해 대약진운동과 사회주의 총노선에 대한 회의를 불식하고 그들을 단결시키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강명화2005, 88-89) 하지만 1951년의 마오쩌둥의 판단을 낭만적 현실주의의 관점에서 해석했듯이 1959년의 마오쩌둥도 당시 중소관계라는 국제정치적 요인을 통해 다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당시1951년과는 달리 더욱 표면적으로 악화되는 중소관계가 마오쩌둥의 1959년 여산회의 결정에 미쳤을 영향을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 1951년과 1959년의 중소관계가 다른 점은 1953년 3월 5일에 스탈린이 사망했다는 점에 있습니다. 마오쩌둥은 스탈린이 살아있었던 한국전쟁 기간 동안, 자신이 아시아의 티토가 일수도있다는 스탈린의 최대한 의심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는 점을 전술한 바 있는데, (선즈화2014, 36-37) 우선 사회주의 진영 내에서 강력한 리더십을 행사했던 스탈린이 부재한

시기라는 점은 주목할만 합니다. 더 나아가 마오쩌둥은 스탈린의 죽음 이후 자신이 세계공산주의 운동에서 탁월한 지위로 향상된 것으로 생각했고, 소련의 새로운 지도부보다 자신이 이론적으로나 경험적으로 앞서 있다고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1956년 2월 소집된 소련 공산당 20차 대회에서 스탈린에 대한 비판이 일어나면서 이를 계기로 중소관계는 더욱 틀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소련은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로 넘어가는 과도기에는 평화적 방법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였으나, 중국이 이에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념적으로도 소련과 중국은 다른 방향을 추구하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흐루시초프는 스탈린의 잔인성과 비인도성을 비판하였고, 공산주의 체제의 우월성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자본주의 국가에 대한 무력사용이 없어도 평화공존을 통한 세계적 승리를 거둘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소련은 1957년 중소가 체결한 국방신기술에 관한 협정에서 소련이 중국에게 원자탄 견본과 기술자료를 제공하기로 했던 약속을 1959년에 6월에 일방적으로 폐기하였는데, 국가간에 영토, 주권과 독립을 존중한다고 하면서도 중국에 대하여는 대국주의를 펴면서 중소갈등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이 같은 중소갈등의 심화 속에 1959년 7월 여산회의가 열렸던 것입니다.

마오쩌둥에게 있어 스탈린이란 존재를 통해 상정된 중소관계는 표면적으로는 순응해야하지만 내면적으로는 자신에 대한 의심을 해소해야하는 압박을 주는 국제정치적 요인이었습니다. 하지만 1950년대 초반에 이 같은 압박을 주었던 스탈린이 사망하고, 흐루시초프가 스탈린에 대한 비판과 서구에 대한 평화공존론을 주장하는 1956년 이후가 되자 소련에 대한 대립각을 충분히 세울 수 있다는 자신감을 마오쩌둥이 가지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마오쩌둥은 1956년 3월 31일 실시한 유단 소련대사와의 대화에서 그 동안 스탈린이 국민당의 입장에서 중국 공산당의견과 능력을 과소평가 했다고 언급하였고, 스탈린이 실시한 정책의 폐단(불법적인 강압, 전쟁수행에서의 오류, 집단지도체제의 거부와 독재, 유고와 같은 국가에 대한 외교정책의 실패)을 지적했습니다. 1957년 1월에도 주은래가 마오쩌둥에게 소련 공산당 리더십의 전략 및 전술, 국제관계에 있어서의 취약점을 분석해보고하기도 하는 등, 중국은 이제 소련과의 갈등을 표면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인지하면서 중국만의 노선을 모색합니다. 1958년에는 장거리 무선 통신국을 중국과 함께 설치하자던 소련의 제안에 대해 중국은 독자적인 설치를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1959년 6월 소련의 핵무기 기술원조 거부직후, 7월에 열린 여산회의는 마오쩌둥에게 있어서 중국과 소련의 노선구분을

확실히 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했습니다. 흐루시초프의 서구와의 평화공존 노선이 기존의 사회주의 노선에서 벗어난 수정주의로 비취질 수 있었던 맥락속에서 소련과의 차별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국내적으로 진단된 대약진운동의 폐단에도 불구하고 마오쩌둥은 더욱 ‘좌경화’된 운동노선을 추진했습니다. 평터화이는 마오쩌둥의 권위를 실추시키지 않기 위해 조심스럽게 개인적인 편지로 대약진운동의 폐해가 수정되기를 바랬습니다. 하지만 평터화이의 비판은 소련에서 이미 탈-스탈린화가 진행되면서 독재에 대한 국제적인 비판이 등장하던 시기에 제기되었고, 마오쩌둥은 이를 당시 사업에 대한 비판을 넘어 2선에 물러나 있었음에도 실권을 쥐고 있었던 자신에 대한 비판으로 변질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했을 것입니다. 요컨대, 마오쩌둥에게 당시 악화된 중소관계는 소련의 간섭이나 방해를 넘어 사회주의진영에서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중국만의 노선을 추구하고자 동기를 유발했을 수 있으며, 특히 소련에서의 독재비판은 마오쩌둥에게 중국 내부의 독재비판에 대한 예방의 필요성을 더욱 느끼게 했을 것입니다.

결론: 낭만적 현실주의자, 마오쩌둥

1962년 9월 마오쩌둥이 당 내에서 실시한 연설을 보면, 마오쩌둥은 1945년부터 이미 스탈린과의 내면적인 갈등관계에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오쩌둥은 사실 소련이 자신들의 혁명이 성공하도록 허락하지 않았다고 회고합니다. 당시 스탈린은 오히려 공산당에게 내전은 일어나서는 안되며 장개석과 협력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중국혁명을 예방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은 혁명을 지속했고 국공내전에서 승리할 수 있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949년 중국 공산당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도 스탈린은 중국이 유고슬라비아와 같이, 그리고 자신이 티토와 같은 지도자가 될 것에 대해 지속적으로 의심하고 있었고 중소우호동맹조약을 체결하러 갔을 때도 스탈린은 적극적이지 않았음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마오쩌둥은 이 같은 스탈린의 의심이 1950년 한국전쟁 참전과 중공군 1,2차 공세이후 사라졌으며, 자신의 충성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1951년 중공군 3차 공세에 대한 마오쩌둥의 결정은 바로 이 같은 중소관계의 내면적 갈등에서 해석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스탈린이 마오쩌둥을 통해 전쟁지도를 했으며, 따라서 38선을 넘어서는 군사작전을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한 것은 스탈린의 의도라는 해석은 너무 단순합니다. 스탈린의 지시를 무시할 수는 없었어도, 이미 어느 정도 스탈린의 자신에 대한 의심을 해소한

것으로 생각한 마오쩌둥은 유엔군이 공중우세로 인한 보급품의 전달지연과 파손, 그리고 1950년 10월 중순부터 12월 초까지 쉬지 못하고 지속적인 공세를 취할 수밖에 없었던 당시 중공군을 대변한 펑더화이의 의견에 따라 38선을 넘더라도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1950년 말의 두 차례의 중공군 공세에 이어 1951년의 신정공세와 2월공세를 큰 휴식없이 지시한 마오쩌둥의 결정은 중국의 능력을 보여주는 일종의 시위(demonstration)인 동시에, 더 확실히 자신에 대한 스탈린의 의심을 해소하고자 했던 낭만적 현실주의자로서의 판단이었던 것입니다.

1959년 여산회의에서, 7월 14일의 펑더화이의 편지와 7월 23일 마오쩌둥의 연설은 1951년의 의견충돌보다 더욱 극적인 갈등을 보여주었습니다. 펑더화이는 당시 비현실적인 수확목표, 강압적인 지시, 과장풍, 공산풍등 실제 생산량의 달성과 농, 공업의 현대화를 저해하는 요인들을 확실히 교정해야 한다는 합리적인 의견을 내놓았지만, 마오쩌둥은 혹자가 말하듯 ‘낭만적 혁명가’ 혹은 ‘낭만적 군사주의자’(Zhang 1995)가 맞는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의 낙관적인 전망과 펑더화이에 대한 극단적인 비판으로 반우경투쟁을 천명하고 기존 노선을 ‘모험주의’로 명명하며 강화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전까지 내면적 갈등관계에 그쳤던 중소관계가 표면적 갈등관계로 전환되어간 1956년 이후의

국제정세를 생각하면 마오쩌둥은 소련과의 국제적 구별짓기를 위해 국내적으로 더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흐루시초프가 스탈린의 독재를 비판하였던 맥락을 고려하면, 중국 내부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독재비판을 예방하는 효과도 노렸을 것입니다.

1920년대에 시작된 마오쩌둥의 낭만적 현실주의는 기적적인 중일전쟁과 국공내전의 승리, 그리고 1950년 한국전쟁에서의 중공군 1,2차 공세의 대승을 낳았습니다. 마오쩌둥이 회고하듯이, 1950년에 한국전쟁에 참전한 이후, 중공군이 1,2차 공세를 통해 당시 세계 최고의 군대라고 여겨지던 미군에 대해 큰 승리를 거두고 나자 스탈린은 마오쩌둥에게 의심을 거두기 시작했습니다. 스탈린은 마오쩌둥에게 축전을 보내기도 했고, (테이벳 쉰이2011, 241-242) 미온적이었던 군사원조의 태도를 바꾸어 당장 2000대의 수송차량을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행정자치부 정부기록보존소2002, 106-107) 하지만 마오쩌둥은 당시까지의 성공 속에서, 한편으로 자신의 성공이 2차대전이라는 더 큰 구조적 요인에 의해 견인되었다는 사실과 유엔군의 중공군에 대한 정보실패에 기인한 것이라는 사실을 잘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마오쩌둥의 지속된 낭만적 현실주의의 과잉은 큰 성과 없었던 1951년 중공군 3,4차 공세로 이어졌고, 1959년 다시

마오쩌둥에게 도움이 될 만한 조언을 한 펑더화이에 대한 정치적 비난과 시대에 역행하는 정책수행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당시 중국 공산당의 정책방향은 수정되지 못하고 퇴행하면서 1966년부터 1976년까지의 중국 현대사에서 잊혀질 수 없는 문화대혁명을 초래하였던 것입니다. 만약 1951년과 1959년에 펑더화이의 의견을 마오쩌둥이 들었다면, 그리고 그의 낭만적 현실주의의 과잉을 조절할 수 있었다면, 오늘날 21세기의 미중관계는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지 않았을까요?

참고문헌

펑덕회. 1981. 《펑덕회자서》. 연변: 연변인민출판사.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편. 2010. 《6.25전쟁사 7: 중공군 참전과 유엔군 철수》. 서울: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편. 2011. 《6.25전쟁사 8: 중공군 총공세와 유엔군의 재반격》. 서울: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중국 군사과학원 군사역사연구부. 2005. 《중국군의 한국전쟁사 2》.

- 박동구 역. 서울: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 행정자치부 정부기록보존소. 2002. 《한국전쟁관련
중국자료선집Ⅱ》.
- 데이빗 쉰이. 2011. 《중국의 6.25전쟁 참전》. 서울:
한국전략문제연구소.
- 션즈화. 2010. 《마오쩌둥, 스탈린과 조선전쟁》. 최만원 역. 서울:
선인.
- 육군사관학교 군사사학과. 2006. 《군사사상사》. 서울: 황금알.
- 강명화. 2005. “1959년 여산회의 시기 팽덕회의 대약진 인식과
중국 공산당의 대응.” <중국근현대사연구> 26호.
- 션즈화. 2014. “극동에서 소련의 전략적 이익보장:한국전쟁의
기원과 스탈린의 정책결정동기.” <한국과 국제정치>.
제30권 2호.
- Zhang, Shu Guang. 1995. *Mao's Military Romanticism: China and the
Korean War, 1950-1953*. Lawrence, Ken.: University Press of
Kansas

7장

798 예술구의 정치학

_798 예술구

김솔비

이화여자대학교

들어가며

북경 답사의 마지막 날, 마지막 일정은 파산즈 지역에 위치해 있는 798 예술구였습니다. 예술은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구체적인 상황과 생각을 보여주는 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사회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고뇌들과 그에 따른 다양한 재해석들을 나타내는 방법으로서 예술은 기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술가들의 재해석들은 시대 상황이 바뀌어감에 따라서 분명한 변화의 물결을 맞이하고, 이 물결은 곧 사회 전체로 퍼져나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미술이라는 사회의 아주 작은 한 부분이

그 사회 전체의 미래를 그려보는 퍼즐로서 역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정치의 미래를 공부하는 우리에게 798 예술구는 더욱 의미 있게 다가왔습니다.



▲ 촉박한 일정으로 인해 달리는 버스 안에서 진행된 발제.

현대 국제사회에서 사회주의 정신을 계승하고 있는 몇 안 되는 국가로서, 중국의 현대 모습을 살펴보는 데에도 미술은 아주 명확한 퍼즐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현대 미술은 다른 국가

들에 비해 여러 역사적 사건들과 더욱 밀접하게 연관을 맺으면서 발전해 왔습니다. 각 개인들에 대한 당, 정부의 철저한 검열과 통제가 이루어지던 문화대혁명과 덩샤오핑(鄧小平)의 개혁 개방 정책이 특히 그러합니다. 문화대혁명의 상처는 오랜 시간 동안 중국 예술계의 주된 테마로 자리잡아왔고, 이후 다양한 정책들이 정부 차원에서 시행되는 와중에도 그 흔적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황루이(黃銳)를 중심으로 한 비공식적 전위 예술가 집단인 성성화회(星星畫會)에서 출발하여 아이웨이웨이(艾未未)에 이르기까지, 예술 작가들이 정치적 목소리를 내는 중국 현대 미술의 주류가 이 시기들을 거쳐 형성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현대 미술계의 아버지인 황루이의 숨결이 남아있는 798 예술구는 변화하고 있는 중국이 만들어낸 새로운 해석의 현장으로 중요시될 수 있습니다. 옛 모습을 잊지 않는 동시에 새로움을 두려워하지 않는, 변화하고 있는 중국의 모습이 이곳에서 꾸준히 잘 드러나는 것입니다.

명실상부한 강대국으로 자리잡아 이렇게 끊임없이 변화하는 중국의 미래를 보다 선명하게 그려보기 위해서 우리는 798 예술구라는 공간을 정치적 상황들과 함께 살펴보고자 하였습니다. 문화대혁명과 개혁 개방이라는 과거의 역사적 사건들이 현대 미술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그리고 중국인들의 눈에서 미래 중국은 어떻게 그려지고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중국

의 당대미술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을 고민해보고, 나아가 중국 전체의 방향성을 예측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 UCCA 앞 공룡조형물 앞에서.

개혁 개방과 예술

중국인들에게 마오쩌둥(毛澤東)과 문화대혁명의 의미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큼니다. 1966년부터 10년에 걸쳐 마오쩌둥 국가주석에 의해 전개된 이 대규모의 사회주의 운동은 결과적으로는 경제적, 정치적 혼란을 가져오며 중국 인민들에게 큰 트라우마를 남겨주었습니다. 예술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든 시각 예술가들은 배우이자 마오쩌둥의 아내였던 장칭(江青)이 선포한 원칙들에 따라야 했고, 미술 작품들은 사회주의 리얼리즘이라는 하나의 틀 아래에서 존재하며 자율성은 억압되었습니다(김지연 2013, 232). 하지만 마오가 서거하면서 문화대혁명은 자연스레 막을 내리고, 덩샤오핑이 국가주석의 자리에 오르게 되면서 중국 미술계에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덩샤오핑 국가주석을 이전 시기와 명확히 구분 지어주는 정치적 특징은 실용주의적 개혁 개방입니다. 1978년 상임위원회 연설에서 보여주듯이, 그는 마오의 혁명 정신과 이데올로기를 완전히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문화대혁명의 상처를 씻고 올바른 사회주의로 나아가기 위해서 개혁 개방을 반드시 필요한 수단으로 여겼습니다(Deng Xiaoping 1984, 141). 이러한 덩샤오핑의 정책들은 중국 전 사회에 걸쳐 자유주의적, 실용주의적 바람이 불게 하였고, 탄압받았던 중국 예술가들을 움직이게끔 만들어 주었

습니다(Gladston 2014, 85-88).

이와 같은 변화에 힘입어 관념적으로 새로워진 리얼리즘 작품들이 등장했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형식 자체를 뛰어넘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문혁 시기 서구의 부르주아적 미술로 금지되던 모더니즘의 재조명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술가들은 여러 양식을 습득하여 자신의 생각을 잘 표현하는 것은 꼭 필요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서양 미술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보였습니다.(이주현, 2010) 모더니즘 양식에 대한 도전은 단순한 형식에 대한 호기심을 뛰어넘어, 그것이 가지고 있는 자유롭고 개방적인 관념에 대한 관심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황루이, 아이웨이웨이와 같이 1979년 성성미전(星星美展)에 작품을 전시하였던 다양한 화가들의 움직임은 현대 중국 미술의 대표적 특징으로 나타나는 전위성(Avant-Garde)을 이끌어내기도 하였습니다.

798공장에서 예술구까지

미래 중국의 모습을 그려보기 위한 공간으로, 마지막 목적지였던 798 예술구는 주말 도시의 교통 체증으로 인해 여유롭게 관람하지

는 못하였습니다. 준비했던 발제도 달리는 차 안에서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하지만 피곤한 일정에도 불구하고 모두들 발제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798예술구는 현재 중국의 문화가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공간입니다. 파산즈 지역에 위치해 있는 이 예술 공간은 원래 1950년대 구소련의 원조와 동독의 설계로 건설된 국영공장이었습니다. 사회주의 국가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정부의 관심으로 이 공장은 빠르게 팽창했으나, 구소련의 붕괴와 냉전의 종식, 중공업 산업 위주의 경제 시장이 변화하면서 중국 정부는 공장 지대를 IT산업기지로 재개발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화 과정에서 토지의 실제 소유권자인 치싱 그룹은 세를 놓았고, 변화에 민감한 지리적 특성과 편하게 작품 활동을 할 만큼 넓고 저렴한 공간은 실험 정신을 지닌 여러 예술가들을 끌어들이게 되었습니다(우홍 2005, 325-326). 또한 중국에서 흔히 볼 수 없었던 독일 전통의 건축 양식인 바우하우스의 아름다움은 곧 더욱 많은 예술가들을 정착시켰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예술가들의 정착은 ‘새로운 798건설(再造798)’ 운동이라는 주체적인 캠페인을 통해 이어졌고, 지금의 798예술구까지 만들어내게 되었습니다.

군수공장에서 예술가들의 군락까지, 파산즈 지구에서 나타난 공간 특성의 변화는 예술가들로부터 시작된 기존에 지배적이던 관념에 대한 거부와 저항의 모습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개혁 개

방 이후, 여전히 국가의 통제와 검열이 존재하는 사회이긴 했지만 적어도 당시 모습에 문제의식을 느끼는 사람들은 보다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환경도 함께 만들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목소리들의 선두에는 예술이라는 문화가 자리 잡고 있었고, 최전선 지역으로 다양한 비정통 예술가들이 터전을 마련한 798예술구가 존재하였던 것입니다. 798예술구는 또한 중국 예술에서 과거와 현재, 중국과 서양이 모두 공존하는 복합성과 전위성을 가장 잘 드러내는 공간으로도 역할하고 있습니다(박정희 2012, 519).



▲ 현대미술관 내 전시된 작품

황루이와 쉬용(徐勇)을 비롯한 ‘새로운 798건설(再造798)’을 이끌어낸 예술가들은 기존의 역사적, 미적 가치를 최대한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공간을 사용하고자 했는데(이보연, 2008) 이는 사회주의 전통과 서구의 새로운 가치를 공존시키는 현대 중국의 근대화 과정에서의 독특한 특성을 보여주는 한 예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현대 중국의 발전에는 분명히 서구적 이념이 반영되고 있지만, 기존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모습을 완전히 전복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지는 않습니다. 과거의 체제와 관념에 대한 완전한 거부와 투쟁을 내포하고 있는 서양의 전위성과는 분명한 차이를 보이는 부분인 것입니다(고명로, 2009).

황루이와 아이웨이웨이를 넘어서

아이웨이웨이는 반체제적, 전위적인 중국 현대 미술의 특징을 대표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중국 현대 미술의 개척자입니다. 천안문 광장 앞에서 가운데 손가락을 세우고 있는 사진인 「원근법 연구-천안문(Study of Perspective-Tiananmen)」에서 볼 수 있듯이, 그의 작품들에는 모두 기존의 지배적인 이데올로기에 대한 거리를 두는 정치적 메시지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아이웨이웨이, 2014). 아이웨이

웨이는 자유, 특히 표현의 자유가 결여되어 있는 현재 중국 사회를 직시하고 맹목적인 수용은 거부하지만, 결코 서구식 자유 민주주의 사회를 무조건적으로 열망하거나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현대 중국의 체제 자체를 완전히 거부하려는 것이 아니라 아주 기초적으로 인간이 누려야 할 자유를 위해 싸우려는 것입니다(세라 손튼 2016, 37). 그렇기에 그의 활동들은 대중들의 일상생활과의 접촉을 더욱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작품을 보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생각하기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웨이웨이를 중심으로 전개됐던 중국 미술계의 미래는 상당히 다른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을 대표하는 작가 중 한 명인 차오펬이(曹斐)의 「Cosplayers」(2004), 「Whose Utopia?」(2006) 같은 작품들에서 보여주는 예술 활동은 중국이 국제 사회의 다른 행위자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기존의 전위 예술적 특징보다 상업적, 심미적 요건을 더욱 강조하고 있습니다. 국내 정치에 대한 생각이나 저항의식을 예술 작품에 투영시키는 것은 지난 세대의 예술이라 여기고, 대중 문화적인 활동에 더욱 큰 관심을 두는 것입니다(Beam, 2015).

구식의 이데올로기에 대한 정치적 비판과 저항정신을 사람들로부터 고취시키는 수단으로써 예술 활동을 진행하던 기존의 주류를 당당히 거부하고, 세계화에 발맞추어 예술을 보다 개인적이고 독

립적인 표현 방식의 하나로 표현해나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Nuridsany 2004, 241).



▲ UCCA 입장을 기다리며

이와 같은 중국 예술계의 새로운 조류는 798의 유명 갤러리 중 하나인 UCCA에서도 잘 드러났습니다. 방문하던 날은 “The New Normal: China, Art, and 2017”이라는 전시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세계화되고 있는 중국에 대한 작가들의 여러 가지 시각을 나타내는 작품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가장 우리의 이목을 끌었던 작품은 “The Mercy of Not Killing” 이었는데, 작품에 나오는 옥상

같은 곳에 관객들이 직접 올라가볼 수 있도록 만들어놓은 설치미술이었습니다. 공간 전체를 활용한 설치품들과 영상들은 기존의 중국 미술에 대해 가지고 있던 생각을 뒤집을 만큼 충분히 세련되고, 세계화되어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영상을 활용하여 관객들이 참여함으로써 완성되는 작품들이 많았는데 이 또한 세계적인 흐름을 따라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듯 미래의 중국은 세계적 조류에 보다 어우러질 수 있는 유연성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듯합니다. 엄청난 경제적, 문화적 성장을 이끌어내고 있는 현재 중국에서는 기존의 중국적 가치만을 고수하는 것보다 세계화의 흐름에 어느 정도 따라가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현대 중국의 예술 작품 경매 시장의 규모가 확대되고 그에 맞춰 정치적인 색깔보다 더욱 대중적인 요소를 지니고 있는 작품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도 이러한 현상을 잘 드러내는 예시입니다. 하지만 UCCA의 작품들을 보고 가장 많이 한 생각은 그래서 이 작품들은 중국적인가 였습니다. 문화의 영역에서 상대적으로 서구에 뒤쳐져 있다고 여겨지는 지금, 세계화에 지나치게 몰들어 중국적 색채를 가지지 않는 작품들은 오히려 경쟁력이 없을 것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예술이라는 하나의 영역을 통해서 우리는 전통 질서와 새로운 세계적 질서가 빠르게 섞여가고 있는 시대에서 중국이 나아갈 방향성을 그려볼 수 있었습니다.

참고문헌

- 박정희. 2012. “공간재생과 주체갈등- 베이징 파산즈 798 예술구”
<중국인문과학>, Vol. 51, 517-538
- 이주현. 2010. “後文革 시대(1977~1984)의 중국현대미술: 星星畫會
를 중심으로” <미술사연구 통권>, Vol. 24, 163-192
- 고명로(高名潞). 2009. 《중국현대미술사》. 서울: 미진사
- 김지연. 2013. 《중국 현대 미술의 얼굴들: 베이징과 상하이, 두 도
시와 함께 걸어온 중국 현대미술의 어제와 오늘》. 파주:
두성박스
- 세라 손튼, 2016. 《예술가의 뒷모습》. 서울: 세미콜론
- 아이웨이웨이, 2014. 《아이웨이웨이 블로그: 에세이, 인터뷰, 디지
털 외침들》. 파주: 미메시스
- 우홍(巫鴻). 2005. 《작품과 전시: Art and exhibition / 중국 현대미술
의 조류》. 서울: 문사철
- 이보연. 2008. 《이슈, 중국 현대 미술: 찬란한 도전을 선택한 중국
예술가 12인의 이야기》. 서울: 시공사

- Deng Xiaoping. 1984. *Selected works of Deng Xiaoping (1975-1982)*. Beijing: Foreign Languages Press.
- Michel Nuridsany. 2004. *China art now*. Paris: Flammarion.
- Gladston, Paul. 2014. *Contemporary Chinese Art-A Critical History*. London, UK: Reaktion Books.
- Ten Curators. 2009. *Ice cream: contemporary art in culture*. NY: Phaidon.
- Christopher Beam. 2015. "BEYOND AI WEIWEI: HOW CHINA'S ARTISTS HANDLE POLITICS (OR AVOID THEM)" *The New Yorker*. Accessed May 25. <http://www.newyorker.com/news/news-desk/ai-weiwei-problem-political-art-china>